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9월 1일 ~ 4일 문학경기장

달리고... 뛰고... 던지고

육상경기에는 일반적으로 트랙과 필드 종목이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방어법·공격법(달리기·뛰기·던지기)이 스포츠화된 것이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100m 달리기, 400m 계주, 높이뛰기, 창던지기 등 남자 22개 종목, 여자 21개 종목 등 총 43개 종목이 열린다.



| 총 43개 종목 |

■남자 (22)

- 100m, 200m, 400m, 800m, 1500m
- 5000m, 10000m, 110mH, 400mH
- 3000mSC, 4×100mR, 4×100mR
-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장대높이뛰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 10종경기, 20kmW

■여자 (21)

- 100m, 200m, 400m, 800m, 1500m
- 5000m, 10000m, 110mH, 400mH
- 4×100mR, 4×100mR
-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장대높이뛰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 7종경기, 20kmW

문의 _ 032-440-8105, 440-8116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5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오월 축제

월드카니발 · 세계어린이민속축제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레포츠
도공의 숨결, 녹청자도요지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특별한 날엔 특별하기 즐기자

우리 쌀로 만든 우리 떡
종합모듬, 신개념 떡케익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날
그자리를 빛내줍니다.

두배의 즐거움
떡파는사람들
www.dcake.co.kr



●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떡케익



● 소중한 분을 찾아뵙때엔 떡선물세트



● 고마운 분들께 정성을 가득 담은 답례떡



● 하루전 주문하시면 무료배달해 드립니다.
● 당일주문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 일반떡, 혼수떡, 백일떡, 돌떡, 제사용떡
주문배달해 드립니다.

떡 떡케익대표브랜드 TM
보의 하루
대표전화. 1544-1582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인천

2005.5 (통권 137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지영일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04



36



46

04 오월은 푸르구나 | 축제의 계절

08 2005 부평풍물대축제

10 아름다운 도전 | 자활영농공동체 '한마음농장'

12 이달의 공연 | 문희옥孝 콘서트 외

16 For Kids | 어린이도서관

20 5월은 가정의 달 For Youth | 청소년기자단

22 For Adult | 평등부부의 일상

24 For Silver | 노년의 작은 행복

26 굿인천 굿뉴스 | 'Buy Incheon 지원센터' 개소 외

31 의정소식 | '남북특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등 논의 외

32 군·구 풍향계 |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외

3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시작 외

34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⑤ 물류전문인력 양성

35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36 인천 200% 즐기기 |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레포츠

40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④ 녹청자 도요지(국가지정 사적 제 211호)

43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대장암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⑤ 현대식 목장

46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열일곱 번째 사람 | 이윤희 재능대 교수

50 독자마당 | 이달의 주제 '소풍'

54 Info Box | 제1회 인천디자인포럼 외

59 여기가 거기 | 송도유원지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5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네 꿈을 펼쳐라

미국 디즈니랜드 갈까~ 페루 민속춤 볼까?

푸르른 5월, 인천에서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찰랑 찰랑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월드카니발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문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 등 다양하다. 우리시가 준비한 어린이 주간 행사도 알차게 열린다.



찌릿 찰랑 스릴만점 월드카니발 2005

세계적인 이동 놀이장이 인천에 온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이벤트회사인 '펀 페어'(UK FunFairs)와 SBS가 공동으로 '월드카니발 2005' 행사를 송도에서 여는 것. 월드카니발은 영국의 오랜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볼거리, 놀이기구, 게임기구, 공연, 스포츠경기, 전시, 먹거리 등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펼쳐는 거대한 이동형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다. 1991년부터 동유럽을 비롯해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가장 큰 이동 놀이장이 바로 월드카니발이다. 놀이시설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약 1,300억원이니 금액에서부터 얼마나 대단한 놀이시설인지 짐작할 수 있다.



Rides Zone 강심장, 덩벼봐~

40여 가지의 거대하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강심장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이 다양하다. 높이 38m의 타워를 이용해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을 맛보는 Ejection Seat를 비롯해 전 세계에 단 4대밖에 없는 놀이기구인 Top Buzz, Wild Mouse 등이 찰랑한 스릴을 맛보게 해준다. Coco Cups는 '접시타기'를 새로 디자인한 것이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작은 어린이들을 위한 파도그네 Swing Ride, 2대의 역마차와 15마리의 동물들이 회전하는 Stage Coach 등이 어린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Skill Game Zone 100% 확률에 도전한다

43종류의 게임이 설치된다. 게임에 참가한 관객의 네 명중 한명은 장난감을 받게 된다. 제공되는 장난감은 200만 달러 규모로 어마어마하다. 게임은 플라스틱 링을 병에 거는 Bottle Ring Toss 등을 비롯해 제비뽑기로 홀수 번호가 나오면 상품을 지급받는 Odd Numbers, 확률 100%를 자랑하는 Pull a String 등 다양한 게임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Rest & Food Zone 실 땀 쉬고 먹을 땀 먹자~

금강산도 식후경. 놀이에 지치거나 허기진 이들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Food court가 20여 군데 마련된다. 이와 함께 카니발을 찾는 이들의 안전과 청결을 제일로 행사장을 구성해 경찰서, 소방본부, 의무실, 미아보호소, 분실물보관소, 화장실, 휴게소, 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기 간 _ 4월 29일 18:00 ~ 6월 19일
장 소 _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맞은 편 공터
개장시간 _ 평일·주말 12:00~23:00
입 장 료 _ 성인 5천원 / 청소년 4천원 / 어린이 3천원 (시설 사용료는 별도)
문 의 _ 월드카니발 운영본부 (832-8338)



인천에 옮겨온 작은 우주촌 세계어린이민속축제



세계 각국의 15세 이하 어린이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우리 인천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전통축제를 알리고 인천을 세계 민속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05 인천 세계어린이 민속 축제 (INCHEON WORLD CHILDREN FOLKLORE FESTIVAL)'가 5월 1일과 5월 5일 주안역 앞 미추홀로, 인천대공원, 인천도호부청사, 수

봉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대만, 사하공화국,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페루, 카자흐스탄 등 7개 나라에서 참가한 공연단이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시 은율탈춤을 비롯해 부산 수영아류, 경남 진주 삼천포 농악 등 7개 도시에서 8개 팀이 함께 한다.

부대행사로 페이스 페인팅, 가훈 써주기, 민속품전시, 피에로와 요술풍선, 만화 캐릭터와 기념촬영 등도 함께 진행된다.



사생대회



5월 1일 10:00~13:00 | 주안역 앞 미추홀로
축제에 참가한 팀들의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린 그림은 심사 후 즉석에서 시상한다.

세계민속축제개막식

5월 1일 10:30 | 주안역 앞 미추홀로
해외에서 참가한 7개 팀과 국내 참가 6개 팀이 화려하게 개막식을 장식한다.

미디어 청소년 노래·댄스대회

5월 1일 12:00 | 주안역 앞 미추홀로
청소년들이 숨겨온 끼와 재주를 펼치는 한마당 축제

남구 '구민의 날' 문화행사 개막식



5월 1일 15:30~21:30 | 주안역 앞 미추홀로
구민의 화합을 지원하는 축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별 컨테스트와 '구민의 날' 경축공연, 국내·외 민속팀의 공연 등

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석바위, 제일시장, 신기사거리 등에서 풍물패를 선두로한 거리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만남의 장

5월 5일 11:00~13:00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개막 길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중국 기예팀 공연과 국내·외 어린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객과 예술단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

교류의 장



5월 5일 13:00~15:00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대만, 러시아팀의 공연과 봉산탈춤, 남사당 놀음 등 다양하고 화려한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폐막식

5월 5일 15:00~17:00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국내·외 참가팀의 공연과 함께 어린이 민속춤 배우기 행사가 함께 열려 관객과 참가팀이 하나가 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2)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대축제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시가 제8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정한 '제1회 어린이주간'이다. 어린이주간에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어린이 뮤지컬 무료공연, 어린이야구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가 문학경기장(북문광장)을 비롯해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곳에서 열린다.

특히 어린이날 마련되는 문학경기장북문광장 특설무대는 축하방송을 비롯해 어린이 줄넘기왕 선발대회, 결식아동돕기 자선 바자회, 어린이 놀이마당(탐험동산), 대한민국 로봇대전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 기간 : 5월 1일(일) ~ 7일(토)
- 장소 : 문학경기장(북문광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 행사내용

- 1) 제83회 어린이날 기념식
 - 5월 5일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 1부(10:00~11:00)
식전행사(줄넘기시범식, 소방체험 등)
 - 2부(11:00~12:00)
기념식(축하격려,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등)
 - 3부(12:00~14:00)
방송국 축하공연(유명연예인 초청 공연)
 - 부대행사(10:00~18:00)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로봇대전, 어린이놀이동산 탐험 등
- 2) 제1회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 어린이뮤지컬 무료공연(5월 4일~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어린이야구골든벨(5월 7일)
문학야구장/프로야구단 SK 홈경기 식전행사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22)



2005 부평풍물대축제

Dynamic Bupyeong

5월 25일 ~ 29일 (거리축제 28, 29일)

2005 부평풍물축제가 5월 25일 전야제(m.net 공개방송)를 시작으로 29일 대동제까지 5일간 부평로와 신트리공원 등 부평구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풍물 명인전,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창작공연 등 흥겨운 잔치 마당이 펼쳐진다.

두드리며 즐기자~

풍물 명인들이 모인다

다이나믹 부평을 상징하는 퓨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국악연주가 김덕수, 한국농악보존협회장 정인삼 등 국내 초청공연과 풍물, 난타, 소리, 춤, 재즈, 힙합 등이 함께하는 창작 주제 공연이 펼쳐진다. 부평풍물 복원을 위한 지신 뱃기, 완판공연과 강령탈춤, 이리농악, 진주·삼천포농악, 밀양백중놀이,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등 중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과 부평풍물 시연회가 열린다.



함께 즐기자~

세계와 함께 즐긴다

어우러짐이 만들어 내는 중국 청도예술단의 사자춤과, 싱가포르(서울드림 페스티벌 참가팀), 몽골 민속예술단 등 해외 초청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Mix&Culture 'TOTAL THEATER공연' 과 국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共感 CONCERT' 도 있다.



참여하여 즐기자~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된다

부평난장 2005에서는 프린지 축제와 부평구청소년댄스경연대회, Youth Festival, Rock Festival 로 문화예술인들의 만남과 아마추어 발표의 장이 열린다. 또한 흔적과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각종 전통 체험관이 여럿 세워진다. <풍물 체험관>은 다듬이 절구 난타 사물악기 상모돌리기 키 소리 코스를 관람할 수 있으며 <짚 문화체험관>은 짚신 만들기,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봉세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효 및 전통차 예절 체험관>에서는 전통차 예절교실 및 성인식 시연, 효 실천자료 전시와 즉석 효 편지쓰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통 놀이 체험관>에서는 비석치기, 샷샷 던지기, 대형 옷놀이, 투호놀이, 구슬치기, 널뛰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예술 체험관>은 도자체험, 전통 떡 만들기(떡메치기)교실, 전통부채 만들기 교실, 미술을 통한 체험(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이 있다. <아시아문화 체험관>에서는 설탕공예, 아시아 타악, 아시아 전통의상 입어보기, 전통사자탈, 장호다례가 이루어진다.



■일정안내

일 자	주제별	행 사 내 용	장 소	일 자	주제별	행 사 내 용	장 소
25일(수)	전야제	m·net TV 특집 공개방송	진도부지 or 부평공원	29일(일)	풍물마당	14:00 국내/해외초청공연 16:00 국내초청공연	문화빌딩앞
26일(목)	개막식	축제 개막식	신트리공원		놀이마당	13:00 무형문화재공연(강령탈춤) 15:00 무형문화재공연 (밀양백중놀이)	문화사거리
27일(금)	경연대회	부평풍물경연대회, 부평골민속그네뛰기대회	신트리공원			17:00 무형문화재공연 (밀양백중놀이) 18:00 부평풍물 시연회	문화사거리
	공원행사	노인위안잔치, 부평풍물시연회	신트리공원	29일(일)	참여마당	11:00 부평난장2005(프린지축제) 『부평·인천·수도권문화단체』 20:00 초청공연(미8군 군악대)	부평시장역
28일(토)	풍물마당	14:00 국내/해외초청공연 16:00 국내/해외초청공연	문화빌딩 앞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북부교육청입구 서초등학교
	놀이마당	13:00 무형문화재공연 (이리농악) 15:00 무형문화재공연 (인천근해갯가노래 뱃노래)	문화사거리		예술무대	11:00 어린이극 16:00 부평울스타밴드공연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참여마당	11:00 부평난장 2005(프린지축제) 『부평·인천·수도권문화단체』 21:00 우리춤 우리가락 22:00 高聲放歌 (인천밴드연합 ROCK festival)	부평시장역 앞		대동마당	21:00 만·만·세	부평대로
	경연대회	10:00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북부교육청입구 서초등학교	부대 행사	축제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행사, 지역단체참여행사, 축제사진공모전, 부평골왕장기대회, 부평구씨름왕선발대회, 부평골민속 그네뛰기대회, 부평 사랑행사, 우표전시회, 상설 및 전시행사, Net-Work 자매도시(연도시) 전시행사, 부평예술인회 참여행사 등	축제행사장
	예술무대	14:00 어린이인형극 16:00 부평구게임대회	롯데백화점 문화의 거리				

문의 _ 부평풍물대축제추진위원회 (509-6116~9 / www.bpf.or.kr)

“아자, 해낼 수 있다”

겨울과 봄은 따로일 수 없지만 너무도 대조되어 극적인 체감효과가 있다. 새로운 출발과 시작, 활기, 생명, 창조라는 수식이 그래서 가능한가보다. '전국 최초의 광역 자활 영농공동체'로 주목받고 있는 '한마음농장.' 주변의 도움없이 홀로서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고 수익을 공동분배하는 형태의 농장인 이곳 역시 시작과 활기, 생명으로 수식될 봄을 맞고 있다. 남동구 도림동 대로변, '한마음농장'이라는 커다란 입간판 뒤로 여러 채의 비닐하우스가 눈에 들어 온다. 이곳에 힘들었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포슬포슬한 땅에 희망의 땀방울을 뿌리는 이들이 있다. 유두중(61) 씨를 비롯한 8명의 참여자들은 요즘 한참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며 수확물을 출하하는 틈틈이 후끈 달아오른 하우스 안에서 희망을 심고 미래를 토닥이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2002년 남구·남동구·부평구 등 3개 지역 자활영농사업단 공동 교육에서 처음 만났던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데 의기투합, 7주간의 공동체 교육 등을 거쳐 드디어 올 1월 농장을 꾸리게 됐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1~2년간 농사경험을 쌓은 초보 농사꾼이었지만 전문 영농인으로 거듭 태어날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이

다. 인천광역시자활지원센터 창업자금 2,000만원과 사회연대은행 대출금 3,000만원이 종자돈이 되었다. 5,400여평의 농지에 상추와 토마토, 고추 등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 저렴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대겠다고 나섰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 뭘 하겠나,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싸늘한 시선을 보낸 이도 있었다. 처음엔 적응에 힘들기도 했지만 자연과 함께 하며 대지의 생산물을 다루다 보니 심신의 활력도 되찾고 이젠 편견이나 고정관념 따윈 깨버릴 자신이 생겼다.

공동체의 리더격인 인치운(41) 회장은 “정당한 일을 찾아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리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다.”며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의욕과 부지런함만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현재 평균 월급은 월 1백만원 정도. 가장으로서 살림을 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당장에 이루려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바쁜 손놀림을 멈추지 않는다. 농장의 매출에 따라 수익금 분배가 이뤄지고 올해 열심히 농사지어 그만큼 이익이 많아지면 내년 살림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 그렇다고 '많이 생산하고 잘 팔자'만을 외치지 않는다. 대신 '정성스럽게 생산하고 좋은 상품을 팔자'를 미덕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친환경인증은 물론 오존처리한 음이온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 소량고품질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필요한 기술과 지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분 도움을 받고 부근에 이웃한 선배 농업인들부터 한수 지도를 받고 있다. 한마음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시내 대형식당과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지로 매일 나가고 토마토는 일선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탁판매하고 있다.

한마음농장이 3년이 지난 다음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잡게 되면 별도 사업팀으로 독립하게 된다. 인회장은 “우리는 완전 자활, 자립의 상태를 지향합니다.”라며 “당장은 없이 살면 뗏뗏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상이라는 자괴감도 있지만 전문 영농인으로 꽃꽂이 서는 것이 희망이자 계획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한마음농장은 가공과 유통 분야에 까지 뛰어들 계획이다. 독립매장을 열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다. 부근의 다른 작목반이나 영농공동체와 연합해 공동생존을 모색할 생각도 갖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타지에 생태마을 형태의 집단영농공동체를 만들어볼까 구상하고 있다.

한마음농장에 함께 할 출자회원을 모집한다. 1구좌당 10만원으로 구좌제한은 없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입하려면 422-4318, 424-4178로 문의하면 된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1 고추모종 가식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2 희망을 일구는 8명의 참여자들. 사진 맨 왼쪽이 인치운 회장. 3 한마음농장 입간판



1

‘물고기’보다 ‘닭시하는 법’이 최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고 그들 스스로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창업 내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현재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재활용사업, 외식사업, 배송사업 등에 진출해 있으며 일부는 '한마음농장'과 같이 독립적으로 집단을 이뤄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단 형태의 자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자활을 지원하는 후견기관으로는 강화(943-1189), 계양(543-3370), 남구미추출(888-0232), 남구(867-8414), 남동구(422-4318), 동구(761-0766), 부평남부(521-4561), 부평(525-1982), 연수(816-1995), 중구(763-1988), 서구(584-4114), 인천광역시자활지원센터(437-4051) 등이 있다.

문화옥孝콘서트

빈손, 성은 김이요, 강남멋쟁이, 해변의 첫사랑, 정 때문에 등 주옥같은 노래들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문화옥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바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관람객의 마음에 따뜻한 온풍을 불어줄 이번 공연은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부모님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일시 _ 5월 7일(토) ~ 8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40,000원, S석 30,000원 문의 _ 818-5665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및 특별순회공연 새 곳

지난 2004년 초연 때 창작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던 '새 곳'은 인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의 재 비상이라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지역설화 등 향토문화 유산을 표현한 대형 창작 춤이다. 인천시립무용단은 '새 곳'을 5월·6월, 인천과 서울에서 다시 한번 선보인다. 보다 더 깊어진 사유와 군무의 힘은 관객들을 현대의 곳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 인천 |

일시 _ 5월 26일(목) ~ 27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단체할인 40%)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438-7774)

| 서울 |

일시 _ 6월 2일(목) ~ 3일(금) 오후 8시

장소 _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푸릇푸릇끼발산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가요제〉는 1991년 청소년회관 개관 함께 시작된 대표적인 청소년문화 행사이다. 올해로 열네 돌을 맞는 〈청소년가요제〉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잠재소질을 계발하고 폭넓은 문화영역을 체험케 하는 문화마당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고, 대학생 및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중창·그룹 부문으로 나눠 예선을 거쳐 본선무대를 갖는다.

일시 _ 5월 21일(토) 오후 4시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지도팀 (887-5270)

제13회 새얼국악의 밤

올해로 열세번째 맞는 '새얼국악의 밤' 공연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관현악 '아리랑'을 비롯해 피리협주곡 '창부타령'(피리 박경현), 연변가요 '압록강 2천리 영변아가씨'(노래 신광호), 경기민요 뱃노래, 자진뱃노래(노래 김장순),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그리고 관현악과 가요의 만남으로 안치환이 '내가 만일', '광야에서' 등을 부른다.

일시 _ 5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885-3611



창작뮤지컬 〈박달나무 정원〉앵콜공연



2005 인천연극제의 참가 공연을 마친 극단 십년후의 〈박달나무 정원〉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앵콜 공연을 갖는다. 극단 십년후에서는 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결혼가정, 소년·소녀가장, 청각장애인, 비영리 청소년단체 등 문화 소외계층을 5월 13일(금) 오후 4시 공연에 무료로 초청한다. 연극 관람을 하려면 전화(514-2150)로 신청하면 된다.

일시 _ 5월 11일(수) ~ 13일(금) 오후 4시,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050 / www.samsin.info)

극단마임 제84회 정기공연 클라운마임의 세계

인천 국제 클라운마임 축제는 매년 일본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새로운 클라운 마임을 선보이며 국제적인 클라운마임의 우수한 공연을 지역관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축제기간동안 일본에서도 인기의 절정에 오른 팀들과 클라운매니아 층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한국 클라운마임의 대표적인 출연팀인 〈최규호〉〈클라운마임협의회〉〈극단마임〉은 다양하고 새로운 공연으로 한국클라운마임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출연진 _ 일본 〈엔타운폴스〉〈통〉〈팀팀서비스〉

한국 〈최규호〉〈클라운마임협의회〉〈극단마임〉

일시 _ 5월 18일(수) ~ 19일(목) 오후 7시 30분

21일(토)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장소 _ 인천여성의 광장 공연장, 인천도호부청사

티켓 _ 일반 10,000원 / 대학생·군인 7,000원

초·중등학생 5,000원

문의 _ 극단마임 (772-7361 / mime@clownmime.co.kr)

토요문화마당



남구학산문화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옛 시민회관 섬터의 푸른 신록과 맑은 공기를 벗 삼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장소 _ 옛 시민회관 섬터

일시 _ 4월 16일 ~ 5월 28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6월 4일 ~ 7월 16일(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5시

문의 _ 866-3993

제1회 가족사랑 동요경연대회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제1회「가족사랑 동요경연대회」를 5월 14일(토)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자극적인 대중문화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동요의 순수와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부에는 경연대회가 진행되며, 2부에는 축하무대가 준비될 예정이다. 접수는 5월 12일(목)까지이며,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 신명나는 판굿 한마당

일시 _ 5월 7일(토) 오후 2시

공연단체 _ 사물놀이 미르

공연내용 _ 사물의 온갖 기예와 보는 이들이 흥에 겨워 내지르는 소리, 구경꾼과 예인(藝人)이 너나없이 흐드러지게 어울리는 춤판

• 포크음악의 향연

일시 _ 5월 14일(토) 오후 2시

공연단체 _ 햇빛세상, 449프로젝트

공연내용 _ 신선하고 시원한 포크(락)로 일상에 지친 기성세대들에게 다가가는 새롭고 편안한 노래, 10년이 지나도 되살아나는 음악

• 아름다운 여섯 줄의 하모니

일시 _ 5월 21일(토) 오후 2시

공연단체 _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

공연내용 _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는 30년이 넘는 동안 수백회의 연주를 가진 전통과, 고도의 테크닉, 경이로운 화음으로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로 클래식 기타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 국악의 깊은 향내

일시 _ 5월 28일(토) 오후 2시

공연단체 _ 국악관현악단

공연내용 _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아쟁, 피리, 건반, 타악이 어우러져 화려한 실내악의 진수

금요상설무대 『문화 Vitamin8』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비보이들로 구성된 한국최고의 댄스 프로젝트 팀인 '배틀러 크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04년 관객 설문조사 결과 최고의 호응을 얻었던 '최규호의 클라운 마임', 수준 높은 팝과 재즈연주를 들려줄 '스파크'의 공연, 그리고 창작 판소리와 국악뮤지컬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는 국악'을 선보이는 국악뮤지컬 집단 '타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 연 일 시	공 연	공 연 내 용
5월 6일 오후 7시 30분	배틀러 크루	댄스 퍼포먼스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최규호의 클라운 마임	클라운 마임
6월 3일 오후 7시 30분	타 루	창작 판소리/국악 뮤지컬

문의 _ 505-5995, 010-7337-5513



이달의展

제5회 재능사건연구회 전시회

6일~1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푸른산-이진용 개인전

6일~1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제14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

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장

제2회 수매회전(수채화)

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동상이몽전

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연수구 사생대회 수상작품전

16일~20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이호영 초대전

20일~26일 갤러리 진

도사랑모임, 테라코타작품

20일~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김기철 석채화전

20일~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장

제18회 인천구상작가회원전

20일~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박희자 개인전

20일~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반복적 일상 by 이소윤, 이종성, 조은영

21일~6월 2일 스페이스 빔 전시실

한국 서예, 문인화 6대 광역시 인천 초대전

27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김연옥 개인전

27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제13회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28일~6월1일 인천(수봉)문화회관

인 형 뮤 지 컬 개구리왕자와 공주



‘제1회 어린이주간’(5월 1일 ~ 7일)을 맞아 어린이 초청 뮤지컬 공연이 열린다. 인형뮤지컬 〈개구리왕자와 공주〉는 물질만능 시대에 살아가면서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강하고 이기적

으로 변해가는 어린이들에게 약속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각종 인형과 탈 그리고 그림자 인형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형 뮤지컬의 재미를 더해주며 친근한 동화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다.

일시 _ 5월 4일(수) 오후 3시

5월 5일(목) 오전 11시, 오후 3시

5월 6일(금)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주변

티켓 _ 무료 (예약관람)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인천시 여성정책과 (440-2722)

어 린 이 날 특 선 가 족 뮤 지 컬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는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화려한 음악과 조명을 통해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연출한 가족뮤지컬이다. 총명하고 어여쁜 미녀와 멋진 야수의 아스라한 사랑과 익

살스런 조연들(주전자, 촛대, 시계)의 톡톡 튀는 캐릭터가 그 재미를 더해 준다. 신나는 음악과 세련된 무대, 힘 있는 안무로 어린이들이 꿈의 동산으로 직접 초대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일시 _ 5월 3일~4일 오전 11시

5월 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어른 10,000원 / 학생·어린이 8,000원

문의 _ 813-8040

etc.

마당극 <흥부와 놀부>

5월 3일~15일 / 평일 오후 2시, 4시 토·일, 공휴일 12시, 오후 2시, 4시 7천원, 5천원

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5월 17일~29일 / 평일 오후 2시, 4시 토·일, 공휴일 12시, 오후 2시, 4시 7천원, 5천원

문의 _ 김소극장 (434-7008)

2 0 0 5 뮤 지 컬 어린이 난타

맛을 소리로 바꾼 난타, 그 난타의 컨셉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것이 〈어린이 난타〉이다. 이번 어린이 난타는 드라마적 요소를 더욱 가미, 극의 재미를 더하고 마법의 요리기구, 충격센서가 부착된 바디피아노, 효과음에 따른 과장된 몸동작 등 극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작을 표현하는 효과음과 과장된 몸동작들은 아이들에게 좀더 사실적이고 코믹한 웃음을 선보일 것이다. 또한 배우들과 함께하는 연주에서 충격센서가 부착된 바디 피아노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고 자동센서를 통한 악기의 빛 발산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좀더 신기하고 재미난 동화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_ 6월 4일(토) 오후 2시, 5시 30분

6월 5일(일)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25,000원 / S석(2층) 2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어 린 이 날 특 집 초 대 형 뮤 지 컬 보물섬



R.L 스티븐슨(1850~1894)의 장편 소설 〈보물섬〉 이야기를 무대에서 재현한 뮤지컬로, 탄탄한 스토리와 재즈 탭 댄스로 이뤄진 안무, 창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이다. 어린이에게는 참다운 용기와 희망을, 어른에게는 잃어버렸던 동심의 꿈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해 주는 작품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_ 5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5월 5일(목) 오전 11시,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_ 미추홀 아트센터 (518-1511)

라이브뮤지컬 <춤추는 빨간구두>

5월 3일~15일 / 평일 오후 4시 토·일, 공휴일 12시, 오후 2시, 4시 7천원, 5천원

마당극 <도깨비와 흑부리 영감>

5월 17일~29일 / 평일 오후 4시 토·일, 공휴일 12시, 오후 2시, 4시 7천원, 5천원

문의 _ 동아소극장 (522-700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	3	4	5	6	7	8
1일~4일 까지 닌버벌 어초 퍼포먼스 <점프>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인천화성교문문화회관 씨라제홀 2만5천, 2만 760-3473	가곡, 가사, 시조 공개발표회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료 / 765-1682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전 11시,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오전 11시 / 서구문화회관 / 1만, 8천 / 583-2361	가족뮤지컬 <보물섬>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만, 2만 / 518-1511 가족뮤지컬 <개구리왕자와 공주> 오후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무료 / 440-2722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전 11시,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오전 11시 / 서구문화회관 / 1만, 8천 / 583-2361	가족뮤지컬 <보물섬>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만, 2만 / 518-1511 가족뮤지컬 <개구리왕자와 공주> 오후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무료 / 440-2722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전 11시,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서구문화회관 / 1만, 8천 / 583-2361	가족뮤지컬 <개구리왕자와 공주> 오후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무료 / 440-2722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전 11시,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오전 11시,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문화오콘서트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만, 3만 / 818-5665 로안홀음악상을 정기연주회 오후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무료 / 888-0808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후 2시,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문화오콘서트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만, 3만 / 818-5665 가족뮤지컬 <김치꽃 만두> 오후 2시, 4시 / 계양문화회관 / 1만, 5천 / 551-6602
16	17	18	19	20	21	22
남구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공연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무료 / 880-4296 발레 <당신에게일어날 수 있는 일> 오후 5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2만원 / 016-230-0832 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29) 평일 오후 2시, 4시 / 주말 12시, 오후2시, 4시 / 김소극장 / 434-7008	세월 <국악의 밤>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만, 2만 / 518-1511 미추홀 아트센터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천 / 518-1511 극단 마임 합일국제교류 공연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여성의 광장 공연장 / 인천도호부청사 / 815-7101	세월 <국악의 밤>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만, 2만 / 518-1511 미추홀 아트센터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천 / 518-1511 극단 마임 합일국제교류 공연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여성의 광장 공연장 / 인천도호부청사 / 815-7101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만, 5천 / 438-6040 극단 마임 합일국제교류 공연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여성의 광장 공연장 / 인천도호부청사 / 815-7101	호정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 5천 / 765-9756 극단 마임 합일국제교류 공연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여성의 광장 공연장 / 인천도호부청사 / 815-7101	제4회 청소년가요제 오후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무료 / 887-5270 청소년무용제 오후 3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무료 / 440-3963 극단 마임 합일국제교류 공연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 여성의 광장 공연장, 인천도호부청사 / 815-7101 제4회 통일대회<나는 챔피언> 오후 3시 / 동구청소년수련관대강당 / 777-7942	인천불라넷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011-225-8477
29	30	31	1	2	3	4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가곡극 <나의라임오펜지나무> 오후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책벌레들이 이리와, 같이 노을자~

아이들이 좀 떠돌고 돌아다니면서 책을 봐도 옆 사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도서관이 우리집 앞에 있다면 또 얼마나 신날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얘기다. 그런 도서관이 동네 구석구석 숨어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의 대 변신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위 :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을 두 딸과 함께 매일 찾는다는 고종순씨
아래 :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린이도서관 관련회의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자리 잡은 푸른샘어린이도서관에 들어서면 온돌마루바닥에 군데군데 매트와 이불이 깔려 있어 마치 어느 집에 들어온 느낌이다. 찬찬히 살펴보면 벽을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서가가 놓여있고 가지런한 책들이 어린 손님을 맞이한다.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좀 특이한 도서관이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열게 된 탄생과정이 그렇고, 주민들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 아주 작고 따스한 도서관,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주민들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1월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의 안건을 자치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벤치마킹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가좌2동(동장 전무수)은 서구에서 보조금을 따내 주민자치센터를 4층으로 증축하고 3층에 어린이도서관 자리를 확보했다. 이에 질세라 주민자치위원들은 발 벗고 나서 도서관 인테리어와 서가, 집기 마련 등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직접 해 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 행정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자 76명으로 구성된 후원회(회장 김용준)도 생겨나 어린이 도서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순조로운 화음을 바탕으로 드디어 지난 3월 2일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도서관이 생긴 후 쌍둥이 딸과 함께 매일 오고 있다는 고종순 씨(가좌2동·33세)는 “가까워서 좋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더 좋아요. 게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이름도 불러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아이들은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가자고 할 정도예요.”라며 매우 만족해한다.

푸른샘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어린이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자원활동가들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영화상영도 매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갯벌탐사,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제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장소이자 어머니들의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랑방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운영시간 _ 월요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 도서대출 _ 회원 가입후 1회 3권 이내 4일간 | 문의 _ 560-4611



책읽는 어린이를 위한 인표어린이도서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상징어를 걸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992년 1월 21일에 문을 열었으니 어느새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지 13년이나 되었다. 인표도서관은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서 우리 인천에도 만들어지게 된 인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다.

삼산복지관 2층에 들어서면 이제는 나이만큼 낡기는 했지만 어린이들이 편안히 책을 볼 수 있게 알록달록한 소파와 매트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 인표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서가에는 숙제를 해결해주는 백과사전과 매달 나오는 잡지와 어린이 신문, 재미난 그림동화 등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다보니 오전에는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 차지다. 책을 읽고 컴퓨터 검색도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즐기는 아이들이다.

인표도서관은 절기에 맞는 행사와 연중행사를 연다. 5월이면 사랑의 메신저 행사를 열어 아이들이 선생님께 편지를 쓰면 복지관에서 직접 교무실에 그 편지를 전달해 준다. 연중독후감 쓰기 대회도 해마다 열린다. 인표도서관 전체 14개 분관에서 시행되는 연중독후감 쓰기 대회는 월별로 지정된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본부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행사다. 책사랑 잔치도 열린다. 책읽기 좋은 늦가을 즈음에 1주일 동안 학부모행사, 텐트속 잔치, 소망트리만들기, 독후감 쓰기 등의 행사를 연다.

운영시간 _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동절기 5시) | **도서대출** _ 회원 가입후 1회 2권 이내 7일간 | **문의** _ 529-8609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공간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지난 98년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지부에서 육공동육아에 관심이 많은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대동월드 뒤편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연수2동. 이런 곳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을까 싶지만 골목길에 들어서니 ‘늘푸른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문패가 눈에 들어와 반갑다. 도서관에는 좁은 공간에 앉은뱅이책상이 놓여있고 벽에 있는 서가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진열돼 있다.

조금은 협소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장점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동화읽는 엄마 모임 ‘얘기보따리’다. 요즘 엄마들의 고민은 수많은 책 중에서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하느냐에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바로 동화모임이다.

98년 시작된 ‘얘기보따리’는 1년에 2기씩 운영해 현재 12기 신입강좌가 열리고 있다. 5주차로 진행되는 신입강좌는 주로 그림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이론 수업이다. 신입강좌 후에는 자체 모임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 도서관 도우미로, 독서지도사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계속하기도 한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을 8년째 꾸려오고 있는 박소희 관장은 “우리 도서관은 책은 많지 않지만 어린이도서관연구회에서 추천한 목록을 기본으로 책을 선정하고 11기까지의 이야기보따리 모임을 통해 정말 좋은 책인지 다시 한번 검증받기 때문에 엄선된 좋은 책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신규로 추가하는 도서의 선정도 아주 까다롭다. 어린이 도서 서평 잡지를 통해 1차 정보를 수집한 후 서점에서 직접 살펴보고 엄마들 모임에서 먼저 읽어보게 한 후 좋은 평가가 내려져야 비로소 서가에 꽂히게 된다.

박 관장은 또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이곳 저곳에 생길 터이지만 계속해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내고 그곳으로 파고들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운영시간 _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 **도서대출** _ 회원 가입후 어른 1권, 아이 3권 1주일간 대출 | **문의** _ 818-1140



맑은샘어린이도서관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이야기’ 프로그램

우리집처럼 편안한 맑은샘어린이도서관

청천동 시장골목을 올라가니 작은 공원이 시장통의 번잡함에 숨통을 틔워준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 더 반가운 팻말이 눈에 띈다. ‘맑은샘어린이도서관’. 맑은샘은 지난 2002년 2월 6일 처음 문을 열었다. 지역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밖으로만 나도는 아이들에게 문화쉼터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개인이 사재를 털어 문을 연 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 먼저이기도 하다.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편하게 도서관을 드나든다. 겨울에는 밖에 있기가 추워서 찾아들어 오고, 여름이면 공원에서 놀다가 목이 말라 들어오고, 화장실이 급한 아이들도 온다.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들락날락 하는 아이도 있다. 그렇게 드나들다 맘 내키면 아무 책이나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볼 수 있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 도서관의 뜻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운영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좀 서운하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좋은 책을 선정해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을 읽은 후에는 독후활동을 함께 한다. 목요일 3시에는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과 좋은 비디오 상영이 격주로 진행된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동시작가를 초대해 함께 동시를 외우고, 불러보고 감상하는 ‘동시따먹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여느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이런 강좌나 책을 읽는 것 모두가 무료로 진행된다. 또 도자기교실은 성인반, 초등반, 유아반, 엄마와함께반이 각각 진행된다. 단, 도자기교실은 재료와 가마 사용 등 때문에 재료비 정도를 받는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도서 대출은 하지 않는다. 이희수 실장은 “책을 대출해 주는 곳은 여기 저기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책도 보고 문화행사도 참여하면서 나들이를 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도서관을 드나들길 바라는 것이죠.”라고 설명한다.

제집 드나들 수 있듯 편안한 도서관이 바로 ‘맑은샘어린이도서관’이다.

운영시간 _ 월요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책대출은 하지 않는다.**

문의 _ 507-1933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동화읽는 엄마모임

인천의 공공도서관

우리는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벗고 나서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했다. 우선 연수구 동춘어린이도서관, 부평구 부개어린이도서관 등 두 곳이 올해 안에 문을 열 계획이다. 또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과 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은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양구도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시 공공도서관도 어린이실이나 유아실을 따로 갖춰놓고 있다. 엄마와 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시립도서관 www.incheonlib.or.kr 764-9931

북구도서관 www.ipl.or.kr 519-9023

중앙도서관 www.ijlib.or.kr 421-1152

부평도서관 www.bpl.go.kr 526-9301

주안도서관 www.ijuanlib.or.kr 437-5304

서구도서관 www.sgl.go.kr 578-0862

화도진도서관 www.hwadojinlib.or.kr 763-8134

연수도서관 www.yslib.go.kr 814-7540

계양도서관 www.gyl.or.kr 555-6430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

아이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나닐 수 있는 거리에 쉽게 책을 만날 수 있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연수2동	818-1140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청학동	814-0377
진달래어린이도서관	부평5동	261-0317
맑은샘어린이도서관	청천1동	527-1933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청천2동	526-5204
신나는어린이도서관	삼산동	521-3763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산곡3동	521-2040
아름드리어린이도서관	일신동	528-7845

1318 특종을 잡아라

힙합바지에 브리치나 파마머리. 기성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청소년문화를

주도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전달하는 청소년기자들이 우리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 _ 명예학생기자



청소년 웹진 'MOO'는 지난 2001년 인터넷상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시에서 창간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시가 제공했지만 'MOO' (Mirror Of Our Youth)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철저하게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로 내용을 채워가는 웹진이다. 때문에 MOO의 명예학생기자들은 어느 잡지나 어느 단체의 청소년들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MOO는 매월 기획 기사를 비롯

해 교육 및 수능 관련 소식, 각종 공연 및 행사의 동영상 서비스,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및 청소년 프로그램 소개, 직업, 도서, 음반, 요리, 외국어,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 모든 콘텐츠를 꾸미는 사람이 바로 명예학생기자다. 15명의 명예학생기자는 해마다 12월에 새로 뽑아 1년간 활동하고 다시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온라인과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 면접과 작문심사를 통해 기자로 선발된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상의 카페 운영자,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가점을 받는다.

명예학생기자가 되면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단체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기자 활동에 소요되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또 활동 정도에 따라 표창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명예학생기자의 특전은 매주 편집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웹진 속에 담아내고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잡지를 내손으로 발행한다는 것.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 모두 학생기자들의 손끝에서 이뤄진다.

명예학생기자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우리시 청소년 웹진 MOO는 각종 사이트에서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되었고, 인천광역시 인터넷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웹진을 한단계 발전시켜 청소년 신문의 형태로 발간할 계획도 세웠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발로 뛰고 머리로 가슴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명예학생기자들이 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_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민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은 'HE-미추홀'이라는 이름으로 웹진과 청소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 웹진과 청소년신문 발행을 담당하는 것은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기자단은 우리시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학생 중에서 매년 6월에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기자단은 청소년관련 소식과 교육, 사회, 지역, 연예계, 스포츠, 인터넷, 직업 및 진학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사를 취재해 웹진과 신문을 꾸민다. 선발된 청소년기자단은 전문교육과 월 2회의 기자단 회의를 갖고 신문 발간과 배포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MT를 비롯한 각종 연수 및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기자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다.



청소년문화사업단 _ 청소년푸르미기자단

청소년문화사업단의 청소년푸르미기자단은 매월 월간 <청소년푸른침터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기 기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곧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8기 기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출한 기자만 해도 천여명을 육박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한다.

청소년푸르미기자단은 50여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기사화하며 편집까지 맡고 있다.

청소년푸르미기자단 부회장 이경연(구월여중 3) 학생은 "사회, 경제, 인천, 연예, 문화 등의 기사 거리를 찾아 자신의 주변을 더욱 관심있게 보게 된다."며 "어른들이 만든 신문에는 없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월간 <청소년푸른침터>에 대한 포부와 애정을 보였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_ 청소년 기자단 다울



우리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마음을 여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한다. 이 소식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청소년 기자단인 '다울-다함께 어울린다'의 몫이다. 다울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우른다. 센터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포스터를 붙여서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포스터를 보고 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다울'의 멤버가 될 수 있지만 교지편집부나 방송부 관련 학생이면 더욱 환영이다.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20명 정도.

해마다 4월이면 다울 발대식을 갖고 두 차례 정도 교육을 한다. 현재 신문사, 방송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모셔다 촬영기법, 인터뷰기법 등을 교육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도 받는다. 다울이 되면 봉사단체, 학교봉사단,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이나 캠코더로 촬영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한다. 이 같은 활동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그대가 있어 행복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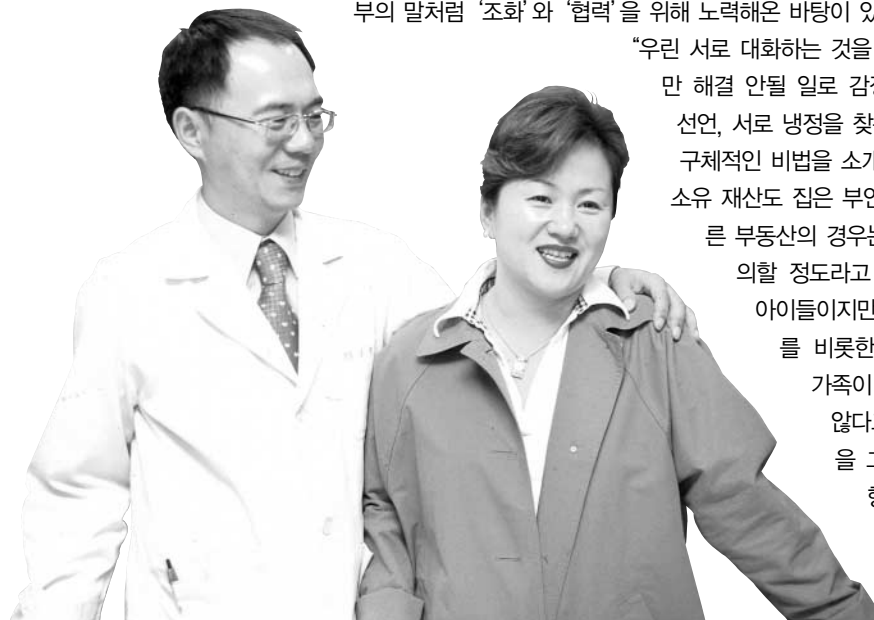
인생에 있어 가정과 자녀의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시기가 ‘장년기’이다. 남자들은 사회적 성공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며 왕성하게 일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기이고 여성 역시 자아실현,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며 독립적 생활을 꿈꾸기도 한다.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잘하던 일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생겼다.”면서 “지난해 받은 평등부부상은 앞으로 더 잘 살라는 압력 같다.”고 토로하는 남향우, 최옥화 부부. 지난해 7월 우리시에서 수여하는 평등부부상을 받고 난 후 이들에게 주어진 시선과 관심이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여전히 ‘닭살부부’라는 애칭이 젊은이만 아니라 40대 중반의 결혼 20년차 부부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다. 한 의사인 남편은 차분하고 세심한 반면 부인은 추진력과 활기가 넘치는 ‘장부’로 61년생 동갑나기인 이 부부의 한지붕살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뭘까?

“남들은 밥 먹을 때도 말 없이 먹다가 놀 때도 따로 논다는데 우린 어쩌나 할 말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보면 시끄러울 만큼 수다스럽다.”고 말보따리를 푸는 분위기부터 예사롭지 않다. 고3, 고1, 초등학교 5학년 사내아이 셋을 키우는 이 부부는 판에 박은 남·녀의 틀이라든가, 안·밖의 경계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젊어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최씨는 은행에 다니며 맞벌이를 하면서도 시부모를 모시고 바지런한 생활을 했다.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자 직장은 그만두었지만 자원봉사와 각종 단체활동으로 아이들 어려서부터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불편함이나 나무람없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다. 집안 청소며, 식사, 출근준비와 등교준비를 여자의 손을 타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가?’로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부부의 말처럼 ‘조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바탕이 있어서일까?

“우린 서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논쟁도 마다않는다.”는 최씨는 “하지만 해결 안될 일로 감정싸움까지 갈 것 같으면 바로 ‘타임아웃’을 선언, 서로 냉정을 찾은 후 생각을 정리해 다시 대화를 나눈다.”고 구체적인 비법을 소개해 주었다. 매우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소유 재산도 집은 부인명의로, 한의원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할 정도라고 한다. 특히 이제는 제법 머리가 굵게 자란 아이들이지만 항상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이 가족은 탁구를 비롯한 레저활동과 여행은 물론 집안 대소사에도 가족이 함께 하며 이것이 어색하지도, 부산스럽지도 않다고 한다.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서로 상의하며 과제를 수행한다.



최옥화 씨는 “보통 집안에서 여자가 혼자라는 느낌,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추려하기 보다는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그 비결인 듯 했다. 애뜻하기 그지 없는 이 부부는 친구 모임에 부부동반은 기본이고 밤이면 밤마다 이모임, 저모임에 서로를 끌고 다녀 괴롭히기 일쑤고 혹시라도 혼자 길을 걷는 경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으레 “남편한테 가? 남편은 뒤에 오나?”라며 ‘실과 비늘’임을 확인해야 안심할 정도. 부부의 영향인지 아이들도 자상하고 큰 아이는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잘 할 수 없다. 물론 공부도 알아서 한다. 이러니 남의 집 가정불화가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다. 부부가 나서서 중재하기 위해 술잔을 기울여가며 말문을 틔우고 상담자 역할에 든든한 후견인 역할도 마다 않는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생활로 여긴다.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고 ‘안성맞춤’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는 하루 몇 시간이나 내 생각해?”라는 남편을 향한 최씨의 질문이 살갑기만 하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평등부부란

사랑의 서약으로 인연을 맺은 부부지만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리 만만치는 않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까지 이루기란 더욱 어렵다. 최근 양성평등이란 말이 나오면서 부부간 고유 성(性)역할을 넘어선 동등하고 존중적인 역할분담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매년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한편 새로운 가정문화 확산 차원에서 평등부부상을 만들어 이를 격려하고 있다. 이 상은 결혼생활 10년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내 평등 실현의 정도, 즉 재산 소유와 관리 방식,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취미 및 여가활용 형태, 대외활동 등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6회째를 맞는 올해의 경우도 추천을 통해 선정되는 다섯쌍에 대해 오는 7월 5일 시상할 계획이며 평등부부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_ 여성정책과 440-2692

인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존중’, ‘이해’, ‘개별성’. 부부사이, 부모와 자녀사이, 개개인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언(金言)이다. 부평구 갈산동 갈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현순) 안에 최근 ‘인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15-8187)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곳은 건전한 가정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 폭력, 이혼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효율적인 극복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5명이 배치되고 자원봉사자 10명이 교대로 이혼, 폭력, 파산 등 가족 문제 발생 예방, 건전 가족문화 확산 및 위기 가정에 대한 합리적 개입을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가정이나 학교 방문상담과 교육, 어머니 바로세우기와 자녀 행복만들기 ‘아빠 힘내세요’ 등 가정교육, 여가·봉사·생활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 캠페인과 어린이 경제교실 등도 운영한다. 센터 손연주 실장은 “가정의 위기가 한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되기 마련”이라면서 “건강한 가정은 각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기본 조건이자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손 실장은 “성인인 부모도 자녀로부터의 독립, 노후 준비, 퇴직 준비 등이 필요하고 평소에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최근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가정 역시 내우외환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해체 위기에 놓이는 가정도 심심치 않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족만의 힘으로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고 상처와 그 폐해의 골이 깊어저만 간다는 점이다.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골칫거리나 가출, 이혼, 폭력 등 가정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려움들에 대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들이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 이들은 방문, 전화 등 개인상담, 성폭력, 성매매방지 등 성관련 상담, 가정폭력, 가출, 이혼, 미혼모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문제 상담,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등 가정문제 상담, 기초적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취업·직업훈련 등 복지요구 조사 등을 벌이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 최근 우리시는 100시간 전문상담과정을 이수한 상담원들을 읍·면·동사무소 68개소에 배치해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상담활동을 펼치게 하고 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각별한 이유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가정·가족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여러 각도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데 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동사무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원들은 주 3회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황혼을 노래하라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늙어감을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활기찬 일상으로 채워가는 모습에서 세월이나 늙어감에 올라미 씩워진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화창한 봄날, 소공원 곳곳에 심어진 꽃나무에선 형형색색의 꽃잔치가 한창이다. 오전 10시, 공원 둘레로는 카우보이 모자에 서부영화 보안관 뺨지를 단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앞세우고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로 무언가 치우는 손길이 바쁘다. “여기 무지 더러워”, “거기는 더 치워야 돼”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간간이 웃음꽃도 피어난다. 간석1동사무소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아홉분의 존재가 세삼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고 분리배출이 상식이 된 요즘이지만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자질구레한 놈들까지 동네 골목은 어수선하다. 건축일을 하셨다던 노용석(72) 할아버지는 “하루 50리터 쓰레기봉투 15개 이상 나올 때도 많다”며 “살기 어려운 동네일수록 우리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건한 순례자들처럼 동네골목을 누비며 잡쓰레기를 거둬들이고 엉터리로 버려진 쓰레기는 가지런하게 매만져 환경미화원들이 편하게 가져가도록 단속해준다. 어르신들이 지나간 자리가 깔끔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비록 60세 이상만 지원가능한 월급 30만원 정도에 5개월짜리 한시직이지만 동네를 깨끗이 하고 내 힘으로 용돈 벌이라도 한다는 보람에 하루하루 일터로 나선다. 공원둘레를 한바퀴 돌고 나가며 자신이 막내라고 소개하는 이경용(65) 할머니는 “서로 마음이 맞고 재밌어 하루 근무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종이가방에 끈 구멍을 뚫는 프레스가 ‘궁, 궁’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고덕인다. 50여명 작업장 안에는 30여분의 어르신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종이가방을 선타라 접고 양면테이프로 붙여가며 모양을 완성해 낸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껴! 하루하루 젊어지는 느낌이야”라고 말하는 얼굴엔 약간의 수줍음과 즐거움이 배어 있다. 63세의 서설자 할머니는 “일을 통해 외로움을 이기고 적은 돈이나마 생계에 보탬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신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작업하시는 이분들이 받는 월급은 10~30만원 정도지만 더 없이 소중하다. 그전엔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아 파시던 분도 지금은 여기서 동료들과 직장생활하는 즐거움에 한껏 빠져 있다.

특수요원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도심을 누비는 분들도 있다. 비록 느릴지는 모르지만 친절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약속하는 어르신들의 택배회사 ‘희망택배’ 직원들이다. 또 다른 사업체로 반찬가게인 ‘어머니 마음사업단’도 곧 출범한다. 뿐만 아니다. 교육형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어르신들을 재교육해서 숭생태해설가나 문화재 해설가로 양성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을 거쳐 30분의 어르신들이 활약중이다. 이 모든 일이 인천계양시니어클럽(553-6330)을 무대로 펼쳐지는 노인세상 이야기이다.

작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계양시니어클럽은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노후’를 모토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의 기회로 연결짓는다. 사회복지사 이지연 씨는 “노인이라해도 수동적으로 시켜서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내일이다’ 싶으면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하고 그만큼의 성과를 이뤄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삶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외국어봉사단

자원봉사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만의 특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당시 물려줄 외국인 손님들을 맞을 민간외교관격으로 인천외국어봉사단이 만들어졌다. 대회는 끝났지만 지금까지 20명의 회원들이 남아 문학경기장 홍보관을 중심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별 구성이 60~80대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명의 회원이 한조로 하루씩 돌아가며 자원봉사에 나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 봉사단 김근수 회장은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익힌 외국어 실력을 노련한 매너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뚝 깊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없어지기 아쉬웠다.”, “유용한 능력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즐겁다.” 방문 당일 당번이었던 최승태(74·일어), 이청수(63·중국어), 유병렬(68·영어) 어르신 의 말이다.

이들은 외국인 범죄자 통역을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하고 양로원과 아동시설에 덤으로 봉사를 나가기도 한다. 수준 높은 통·번역 실력으로 기업체 무역업무를 돕기도 한다. 요즘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홍보에 재미가 붙었다. 전시장 한켠에 각종 안내물과 기념물을 비치해 놓고 대회홍보 겸 인천자랑에 신이 난 것. 이렇게 맞고 보낸 외국인 손님들이 지난해엔 1,200여명이 이른다. 인천시민도 이들의 안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시설을 안내하고 홍보관에 전시된 각종 캐릭터와 기념품을 소개할 땐 프로의 뉘앙스가 난다. 이들을 보면 노후는 다 끝난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는 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만하다.



굿인천 굿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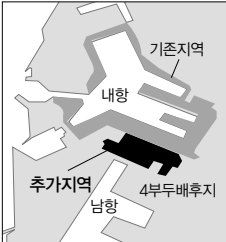
‘Buy Incheon 지원센터’ 개소



우리시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업무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Buy Incheon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리시는 지난 3월 31일 시본청 1층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인천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실질적인 국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투자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경우 각 부서 실무 책임자가 직접 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_ 시 Buy Incheon 지원센터 440-3292

인천항·인천공항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인천항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였던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화물터미널 33만 평과 인천항 4부두 인근 배후지 14만1천 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화물터미널 동측을 포함해 63만평으로 확대됐고 인천항자유무역지역도 기존 내항 51만평에서 14만평이 추가돼 65만평으로 늘어난다. 우리시는 인천공항공사, 곧 출범예정인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연내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52

자전거 도로 새롭게 정비



우리시는 자전거 도로를 권역별로 나눠 레저와 생활권 중심의 도로로 바꾸고, 다양한 테마를 가진 도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도와 청라지구에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각각 총 연장 78.2km, 43.8km의 ‘순환 네트워크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대공원 시흥시 시화방조제 28km는 ‘광역 자전거 노선’으로 꾸며 레포츠와 마라톤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종지구와 월미도는 관광지 중심의 자전거 도로망이 각각 54km, 6km 구축된다. 인천역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으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고,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는 월미도 선착장에서 페리를 이용해 영종도 선착장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울러 강화도 해안도로에도 42k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강화터미널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촌천 9km, 굴포천 14km, 송기천 58km는 레저용 자전거 도로로, 학교통행로용 자전거 도로는 남구(74km), 부평구(3km), 계양구(9km)에 설치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5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 시행

우리시가 인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이 사업으로 우리시는 단체별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교육, 안내책자 발간 등이다.

문의 _ 시 기업지원과 440-2942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극복상 수여

지난 4월 20일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꽃피게 살아가고 있는 김진희(37세 남구, 지체3급), 최경묵(51세 남구, 지체1급), 신영희(55세 부평구, 지체2급) 등 3명에게 ‘제3회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이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됐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4

통반장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시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청취하기 위한 ‘통반장의 목소리’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시 홈페이지 열린 참여 공간 안에 개설 운영되는 ‘통반장의 목소리’ 코너는 관내 3,832명의 통·리장을 포함한 24,666명의 통·리·반장들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접속으로 의견을 담는 곳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과 주민들의 애로 및 시정 개선 내용을 포함한 통·리·반장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큰소리로 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3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대표단 방인



우리시와 우호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대표단 일행이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접견하고 양도시간 교류활성화 및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안상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암스테르담 시장을 인천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적극 홍보했다. 프리츠 후프나겔(Frits Huffnagel) 암스테르담 부시장, Theo Tiemessen 암스텔빈 부시장, Hendrik E.C.Koets 네덜란드대사관 부대사 등 일행은 면담후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2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우리시는 지난 4월 18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우리시 지역혁신특성화 프로젝트로 ‘바이오신약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포럼 사업으로는 ‘남동산업단지 업종별 기술 포럼’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2005년도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서 10개 사업을 선정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국내 유치지, 인천광역시 확정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국내 유치지로 인천광역시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는 지난달 7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20일 KOC 위원총회에 상정기로 했다. 당초 2014년 아시안게임은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유치를 희망했으나 6일 열린 KOC 국제관계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를 국내후보지로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일 KOC 임시위원총회에서 인천광역시가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면 오는 6월 30일까지 정부보증서를 포함한 최종 유치신청서를 OCA에 제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도시는 인도, 요르단, 베트남 등이며 유치지 최종결정은 내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OCA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무총장과 이에리사 선수총장 임명 동의에 이어 대한체육회 사무처 직제개편 추진 지침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사무처 직제 개편은 1998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적 스포츠 마케팅 기반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2008년 북경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 15번째 해외지부로 재중국 대한체육회 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하여 매년 10억씩 3년간 국비지원하고, 포럼활동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2개 사업 5천만원범위내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3494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대폭 개선



노인무료급식이 대폭 개선된다. 우리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1,52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며 명절 등 연휴기간 중에도 굶는 노인이 없도록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급식소별로 지원되던 식단메뉴를 노인에 적합한 영양을 겸비한 표준급식메뉴를 마련,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6

여성취업 도움 인천여성취업센터 개소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무료로 도와줄 인천여성취업센터가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 빌딩 14층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우리시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을 나이·교육정도 등에 따라 몇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그에 맞는 취업알선과 구직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인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을 한달에 한 번씩 센터에 초빙해 여성 구직자들과 만나게 해주는 계획(멘토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전화(441-2456)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wwc.or.kr)를 통해 참여 의사를 알리거나 센터로 찾아오면 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14

최고의 배를 키우기 위한 ‘꽃가루은행’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 전국 최고의 인천 배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꽃가루은행은 국비 3천만원을 확보, 개별 농가에서는 고가품목으로 확보가 어려운 약채취기, 화분정선기, 개

약기, 냉동저장고, 교배기 등을 확보하여 인천 과수재배 농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인공수분 작업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전자식 교배기를 확보, 농업인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문의 _ 시 농업기술센터 440-6380

제49회 신문의 날 기념식

안상수 시장은 지난 4월 1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9회 신문의 날 기념 및 제4회 인천 언론상 시상식’에 참석, 언론문화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들이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가 올해를 인천투자의 해로 정하고 ‘Buy Inche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Buy Incheon’ 캐치프레이즈처럼 인천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을 세일즈하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문의 _ 시 공보관실 440-2040

도심하천 자연형하천 복원 박차



오는 2007년까지 굴포천 등 5개 하천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우리시가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시는 지난 4월 12일 영상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시·종합건설본부, 하천살리기추진단·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오염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 간의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관내 30개의 지방2급하천중 오염이 심한 도심하천인 굴포천, 승기천, 공촌천, 장수천, 나진포천 등 5개 하천 38.56km를 총사업비 1,141억5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07년말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_ 시 수질보전과 440-3052

송도역앞 재래시장 새단장



연수구 옥련동 308번지 일대 ‘송도역전 재래시장’ 준공식이 지난 3월 31일 개최됐다. ‘송도역전 재래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75m, 폭 10m의 아케이드(비거리개) 설치,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을 실시했다. 안상수 시장, 황우여 국회의원 등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통해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2

전국 최초 식품생산자 실명제 도입

우리시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생산자 실명제(FMP)를 도입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리시는 연수구내 대형 식품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되는 175개 품목의 제조·가공업소 제품 포장지에 FMP를 시범 실시한 후 올 하반기부터 전 군·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식품과 건강식품 등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30개 유통품목에 대해 매주 수요일 식품수거 검사의 날을 지정,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위생정책과 440-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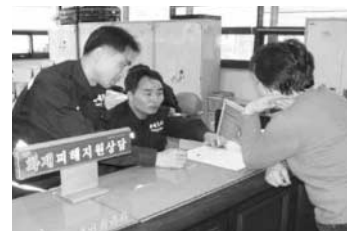
도로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수여



우리시가 지난 4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 주재로 ‘2005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우리시는 올해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191명(남 97, 여 94명)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총 9,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의 _ 시 폐기물자원과 440-3565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우리시 소방방재본부는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 6개 소방서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피해복구관련 정보제공을 받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피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원센터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의사상자의 지정, 국세 및 지방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 안내한다.

문의 _ 시 재난관리과 440-3339

| 인천지방경찰청 소식 |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팔 걷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광현)이 올 3월 인천지역의 안전띠 착용율을 조사한 결과 운전석은 91.2%로 전국평균 91.4%에 근접하고 있으나, 조수석은 73.9%(전국평균 85.4%)로 전국 최하위권의 착용율을 보이고 있는 등 시민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현재 인천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63명의 원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무단횡단으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전체 사망사고의 33.3%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기본질서 위반행위가 가장 큰 사고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 당국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인천교통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정지선 지키기·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첨단교통장비인 DVR(Digital Video Recorder)등을 이용, 정지선위반자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서로 양보할 때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 사랑 지킴이 신규 위촉



상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물 사랑 지킴이』의 ‘신규회원 위촉 및 운영성과 보고회’가 지난달 19일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1년을 맞이하게 된 『물 사랑 지킴이』는 그 동안 116건의 크고 작은 제안·제보와 물 사랑 캠페인 등의 홍보행사 참여 등을 통해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많은 일조를 하였으며, 시정의 심부름꾼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 870-9225

입장을 바꾸면 상대방이 보여요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타파를 위해 우리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라는 취지의 「역지사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간 협력증진’, ‘회의문화 개선’,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지식·정보 공유 활성화’ 등 자율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정책 추진시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제도화하고, 주요 결재문서를 시민에게 수시 공개할 수 있도록 「결재문서 자동 공개시스템」도 구축,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_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702

| 인천시교육청 소식 |

저소득층 영재아 발굴, 교육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잠재적 영재아를 발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영재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 교육청은 우선 어려운 가정이 많은 남부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1곳의 2개 학급(36명)을 지정,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공동 영재학급 형태를 시범운영한 뒤, 중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되며, 교육방법은 사이버 원격 교육 및 출석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사고력과 학습기능 신장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우리시 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매년 2억여원을 들여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고교생을 지도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보충 수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나 교육대생 400여명을 자원봉사자로 선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맡기는 한편, 초·중학교 부진학생 지도 교재도 개발, 보급기로 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초·중·고교 각 1곳씩을 선정해 학력향상 연구학교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업성적 관리방법 대폭 손질

일선학교의 학업성적 관리방법이 대폭 손질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학업성적 평가개선 장학지원단과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고교의 학업성적관

리시행지침을 고치고, 학업성적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이 구성, 운영된다. 또 성적비리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성적관련 민원센터를 운영기로 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감독 체제도 대폭 손질된다. 성적관리에 대한 학교장 책임제도 강화돼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1교사실 2인 감독제도 시행된다. 또 시험시간 예비령제를 통한 실제 시험시간을 확보하고,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시험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교사실시 방법도 바꾼다. 이와 함께 고교 2, 3학년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70~75점으로 설정하고, 과목별 점수를 환산한 평가기준인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 지원 강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첨단학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같은 사업에 내년부터 3년동안 우리시 지원 30억원을 포함해 16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01년 교육 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에 87억6,700만원, 기자재 확충과 교체에 40억3,900만원, 현재 78개(41개교)인 첨단학과를 118개(51개교)로 확대·개편하는 데 19억2,700만원, 특성화고교 지원에 9억3,300만원, 산업체 현장연수에 2억4,400만원 등이다. 교육청은 지역 경제단체·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기업체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고, 취업을 앞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의 정 소 식

『남북특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등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추연어)』는 지난 3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 및 논의한 사항에 대한 시 집행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북교류촉진관련 전문가 활용계획안 의결과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개성공단 입주기업 행·재정적 지원시책 등을 논의했다.



우리땅 독도수호 결의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을 비롯한 노경수 부의장, 김성숙 의회운영위원장, 이근학 기획행정위원장, 고진섭 문교사회위원장, 이강효, 홍인식, 최병덕, 안병배, 이주삼, 김을태 의원 등 우리시의원들이 최근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독도를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 현지에서 독도수호를 결의하고 일본의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의원들은 기상악화로 독도땅을 밟는데는 실패했지만, 삼봉호 선상에서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를 철회할 것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돌아왔다.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었다. 4월 12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박창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송도지구 5·7공구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5·7공구에 대한 기능 재배분과 이에 따른 자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연동계획을 전제적인 틀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200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박창규·홍인식·김덕희(시의원), 문승석·장만식·김동기·심강수(회계사), 이영운·이찬희(세무사), 김용철(건축사) 등 10인을 선임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자부장관에 현안사항 건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회 방문에 따라 박승숙 시의장을 비롯한 신영은 제1부의장, 노경수 제2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및 의정 현안사항을 건의하였다. 박승숙 의장은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의 인천~개성간 도로 개설 방침 조기 결정과 개성공단에서 시제품이 생산되고 남북합의 공사기간을 감안한 인천국제공항~강화간 도로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문의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



중구 ‘한중문화관’ 개관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에 한·중 관광 문화 교류의 통로가 될 ‘한중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한중문화관 1층은 이용객 편의시설로 휴게공간과 건물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공간, 직원들의 사무실 등으로 꾸며졌으며 2층 공간에는 중국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판넬 및 영상을 이용한 홍보공간과 투자유치 상담실, 3층에는 중국 9개 지방정부의 기증물 부스가 설치되고 각 지방정부의 홍보관으로 이용된다. 4층은 공연 및 상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동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로 그동안 중단됐던 만석동 22 일대 아파트 건립공사와 송림초등학교 주변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낡고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한 만석동 22 일대와 만석동 8동을 포함해 당초 계획보다 5천399㎡가 증가된 1만1천231㎡에 공동주택 203세대를 세우기로 했다.

문의 _ 동구청 761-0151

남구 제5회『남구 맛집·멋집 경진대회』개최



남구는 관내 일반음식점 25개소가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남구 맛집·멋집 경진대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소는 구민의 입맛을 당기게 했는데 해당 업체는 가미솔손두부(두부보쌈), 경복궁(왕양념갈비), 루외루(생크림왕새우창채요리), 미락초밥(모듬초밥), 봉이김선달(황태정식) 등 10개 업소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연수구 저소득 노인 및 주민 무료급식소 운영

연수구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연수동 적십자병원 입구에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 무료급식소는 150명이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1식 3찬)이 제공된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남동구 소래포구 녹지 특화사업



남동구는 시흥시 경계지역인 논현동 66-11 일원 9천 m에 대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곳에 300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장미터널 6개소와 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장미 등 5천여그루의 나무와 화초를 심을 계획이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부평구보건소 저소득 노인 무료 백내장 시술

부평구보건소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구 사회복지과의 협조로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무료시술을 벌이기로 했다. 시술 대상자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그 수가 적을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문의 _ 부평구보건소 509-8251

계양구 어린이 전용도서관 ‘효성도서관’ 건립 추진

계양구는 관내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효성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구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계양구 효성동 665-10 일대 40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서구 승학길 차없는 길로



서구는 부족한 도심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승학길,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 추진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는 승학길(심곡동 극동아파트단지 입구 가정동 한전북인천변전소 앞) 1.2km 구간이며 5월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한다. 구는 승학길 벤치 등 편의 시설 설치로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길가에 야생화, 관목류를 심을 계획이다.

문의 _ 서구청 562-5301

강화군 주민자치센터별 1특화 1사회 진흥사업 추진

강화군은 주민자치센터별 1특화 1사회 진흥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강화읍-사랑의 봉사단, 선원면-스포츠댄스, 풍물, 요가 등 동아리 모임 활성화, 불은면-어려운 이웃에 ‘반찬 전달하기’, 길상면-결식아동 자매결연 후원사업, 화도면-유휴지 활용 순무재배 등이다.

문의 _ 강화군청 934-2183

옹진군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식목행사 가저



옹진군은 지난달 5일 ‘제60회 식목의 날’을 맞아 관내 도서지역 나무심기와 비료주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고 봄철 식목일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식재된 나무에 비료를 주는 등 숲을 가꾸는 세심한 작업을 통해 더욱 울창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문의 _ 옹진군청 880-2114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Leading CEO간담회 개최

안상수 시장은 지난 4월 11일 송도비치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관내 주요대학, 병원, 연구기관, 첨단산업 분야의 경영자들이 참석한 Leading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CEO께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은 연륜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면 경제자유구역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오찬을 겸한 간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성장 동력원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미래의학의 선도하게 될 ‘바이오메디컬 허브(BBMH·Incheon Biomedical Hub)’단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조성된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항, 자연환경, 첨단 인프라, 관광레저시설, 풍부한 주변 인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포스트 IT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영종지구에 동아시아를 대표할 ‘바이오메디컬 허브’단지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동아시아 첨단·전문 종합병원과 유전체, 신약, 재생의학, 뇌과학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할 연구센터 및 전문의료, 한방, 전문교육 등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유치,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08년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단지 구축사업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단지 후보지로 영종·용유지구 가운데 토지공사기 사업을 추진하는 570만평 내와 공항신도시 인근,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12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단지 구축을 위해 자문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곧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시작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지난달 8일 기공식을 갖고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의 부지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198만평 규모의 5·7공구 매립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오는 2007년까지 매립해 12만평에 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아이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1994년부터 갯벌 매립에 들어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는 현재 1·2·4공구 갯벌 306만평의 매립이 완료됐고, 매립중인 3공구 77만평은 올해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대폭 이관 ‘원스톱 민원서비스’ 기대

우리시가 관장하던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대폭 이관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136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안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시 정보담당관실과 경제정책과가 관장하던 정보통신사용전검사와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도시가스사업법 업무 등이 경제청으로 이관돼 건축허가시 이원화됐던 민원업무가 일원화된다. 이밖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등록, 건축물 대장의 등기축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업무 등도 경제청으로 이관된다. 반면 그동안 경제청이 맡았던 지방세 부과징수와 청소, 교통업무 등 생활민원 업무는 관할 구청으로 다시 환원돼 영종과 용유도 주민들이 경제청을 찾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글 _ 하현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참여정부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고, 제조업 위주 성장전략 한계의 극복과 함께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물류중심지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물류의 개념이 IT기술의 발달, 물류체계의 글로벌화, 지역경제의 통합 등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판매물류에서 조달, 생산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고객만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핵심수단으로 물류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류중심지화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류-IT, 물류-경영, 물류-통상 등 고도의 물류관련 전문지식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고급의 물류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학을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한 대학원은 인하대학교 등 전국에 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영대학원에서 물류를 부수적으로 교육하는 상황이다. 5개의 대학원에서도 글로벌 물류, SCM관련 교육을 통해 물류분석 능력, 경영전략기획 능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강의중심의 학술연구교육에 치중하고, 영어강의 등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 부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하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에 최근의 물류동향에 적합한 고급의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발성의 지원으로 물류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안정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싱가폴과 네덜란드 등 물류선진국에서는 정부, 기업 및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공동교육프로그램, 이공계-경영의 통합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물류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고급의 물류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국립대학과 미국의 조지아공대가 공동으로 TLI-AP(The Logistics Institute-Asia Pacific)를 설립하여 물류 및 SCM전문석사과정과 국제물류석사과정 등 고도의 물류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고급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물류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물류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제도적 체계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류관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물류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해 인하대학교는 아태물류학부(APSL)을 설립하는 한편, 1980년대 이후 축적된 물류분야 교육 경쟁력을 기반으로 교육내용 및 교육체계의 세계화(G: Globalization), 첨단화(A: Advancement), 지역화(L: Localization) 및 연계화(A: Allied)가 중심이 된 아태물류스쿨(APSL)의 2010년까지의 장기물류교육발전계획인 'GALA 2010'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하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인천지역이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전문인력의 활약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기대되는 때이다.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

한식 **아리랑가든**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7-13 | TEL : 577-9922

스페셜메뉴 : 그린포크갈비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30분~오후 12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24번, 42번
이용 후 진주아파트 하차

양식 **촌사랑**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201-1 | TEL : 937-3931

스페셜메뉴 : 해물스파게티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2시
찾 아 가 기 : 양도면사무소와
탐재삼거리 사이에 위치

중식 **태원**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684-1 | TEL : 862-0806

스페셜메뉴 : 중식고급요리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9시30분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8번
이용 후 학익사거리 하차

일식 **나고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4-6 | TEL : 546-4242

스페셜메뉴 : 스페셜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1시30분
찾 아 가 기 : 공항좌석 111번 이용 후
계양구청 하차



몸은 원한다 ... 색다른 쾌감을

나, 완전히 새 됐어 ... 초경량비행기

하늘을 날고 싶은 것, 그것은 원초적 본능이다.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그만 날개가 녹아버려 목숨을 잃은 이카루스. 오늘도 그의 후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 끊임없이 날개를 단다.

초경량비행기는 하늘, 바람,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레포츠이다. 무게가 225kg 이하, 연료용량 38ℓ이 하 의 비행기를 일컫는 초경량항공기는 조종이 간단해 20~30시간 정도의 실기와 이론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창공을 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송도 아암도 바로 건너편 스카이하브 비행스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며 함께 비행을 즐길 수 있다. 자격증을 딸 때 까지는 두세 달 걸리는데 일대일 교육으로 진행되며 260~3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스카이하브 비행스쿨은 2002년에 개설된 이래 100여명의 '조인(鳥人)'을 배출했고 현재 20대 중반에서 환갑에 이르는 40~5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약사, 간호사 등 7, 8명의 여성파일럿도 있다.

아암도 앞바다는 초경량비행기를 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갯벌과 바다 그리고 광활한 매립지가 있어 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조종간을 당겨 하늘로 치솟으면 금세 세상이 발아래 펼쳐진다. 햇살을 맞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은 다이아몬드를 뿌려 놓은 듯하고 송도국제도시의 고층아파트와 빌딩들은 마치 미니여처를 만들어 놓은 듯 작게만 보인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비행금지 구역만 빼면 어디든 가도 되지만 주로 반경 5km를 날아다닌다. 송도비행장에서는 간혹 시흥의 육곡공원을 넘어 시화호를 지나 화성 제부도까지 원정 비행도 한다.

작은 프로펠러와 아날로그식 계기판 몇개와 막대같은 조종간, 그리고 방향을 조종하는 페달이 전부인 초경량비행기를 처음 보면 "무슨 비행기가 이래..."하고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만 안전 원칙만 지키면 자동차 운전보다도 사고율이 훨씬 적은 멋진 레포츠이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체험비행의 기회가 있다. 13만원을 내면 베테랑 교관이 조종하는 비행기로 한시간동안 짜릿한 비행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_ 인천송도자가용 비행클럽 (258-0058 / 010-3364-0058), 다음카페 <drifter 사랑모임>

스트레스 한방에 날린다 ... 클레이사격

주황색 접시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탕’ ‘탕’. 비행하던 표적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며 뿌연 흙먼지를 날린다. 순간 명중과 파열음의 쾌감이 온몸에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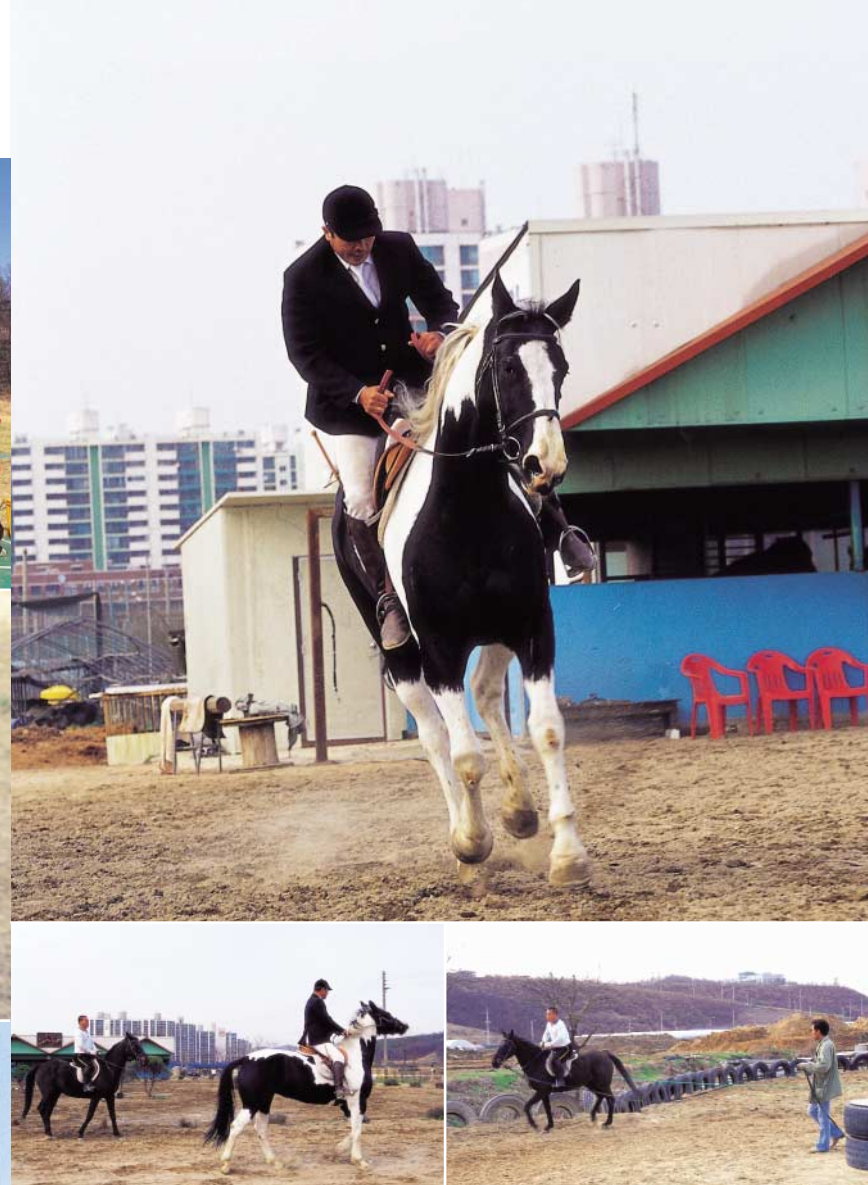
클레이사격은 시속 60~90km로 공중을 비행하는 진흙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목표물 ‘피전(Pigeon)’을 총으로 명중시키는 레포츠이다. 넓게 트인 사격장에서 푸른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피전을 통렬하게 부수는 쾌감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준다.

클레이 사격은 은단만한 작은 탄알이 300~400여 개 들어 있는 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다. 총구에서 발사되면 직경이 50cm 정도로 넓게 퍼져 날아가기 때문에 표적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초보자도 한달 정도만 배우면 ‘명사수’ 대열에 질 수 있다.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 민첩성을 기르는 데 효과 만점인 클레이사격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사격장에서 즐길 수 있다. 문학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명중의 쾌감뿐만 아니라 자연 속의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으로 도심에서 찌들은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기에 충분한 곳이다.

사격 복장은 간편한 평상복도 상관없기 때문에 놀러 갔다가 간단한 교육을 받고 나면 총을 빌려 바로 사대(射臺)에 설 수 있다. 25발 1라운드에 23,000원이며 단체는 5,000원이 할인돼서 18,000원이다.

문의 _ 인천시립사격장 (832-3944)



말타는 쾌감, 말이 필요없다 ... 승마

승마는 기계나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인 말과 함께 하는 레포츠다. 말의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묘한 즐거움을 준다. 승마는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하체가 강해지고 허리가 유연해지며 특히 살 빼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이다. 움직이는 말 위에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되므로 체형 보정과 자세 교정 그리고 내장 운동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천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남동구 수산동 장수천 옆에 있는 금정승마장이다. 지난 2000년에 개장한 금정승마장은 현재 26필의 말을 보유하고 있다. 레슨비는 월 60만 원이며 보통 석달 정도면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속보까지 가능하다. 1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를 할 정도가 된다. 승마는 격렬한 운동이 아닌 만큼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거의 없다.

초보 때는 보통 승마장에서 걷고 달리고 하지만 기초를 다지고 나면 코치와 동행해 산이나 바다로 말을 타고 나간다. 바람을 가르며 들판을 달리고, 개울물을 침범거리며 건너며, 노을진 해변가를 거니는 모습 등 한편의 영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곳 승마장에서는 주로 소래 생태공원과 안산 뒷방울저수지로 ‘마실’을 떠난다.

금정승마장에서는 1회 쿠폰제(35,000원)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춘 사람에 한해 매달 4일 정도 무료강습도 연다.

문의 _ 금정승마장 (461-1331 / 010-9735-0801),
다음카페 <인천금정승마장>

길이라도 좋다, 아니면 더 좋다 ... 산악자전거(MTB)

산악자전거(MTB : Mountain Bike) 는 이름 그대로 산에서 타는 자전거이다. 보통의 자전거로는 접근할 수 없는 흙과 자갈투성이의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 질주하며 해방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레포츠다. 트레킹처럼 주변 경치를 즐기면서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먼 거리까지 질주해서 자연을 벗 삼을 수 있어 좋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평지를 달리다가 라이딩에 익숙해져 도심을 떠나 시골길이나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스틸과 속도감은 물론 몸과 정신이 맑아지고 강인해짐을 느낄 수 있다. 마라톤을 능가하는 심폐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성인병과 스트레스를 몰아내는 데 그만이다.

우리 인천은 도심 가까이에 청량산, 문학산, 철마산 등 비교적 낮은 산들이 많고 장봉도, 무의도, 덕적도 등 한 시간 정도 배만 타면 달을 수 있는 섬의 산들이 곳곳에 있어 산악자전거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에는 프리라이더 인천, 인천골령쇠MTB 등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300여명의 회원이 산악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기아조작법, 페달링 등 라이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_ 프리라이더 인천 (011-688-2273), 다음카페 <프리라이더 인천>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⑭ 녹청자 도요지(국가지정 사적 제 211호)

바람결에 실려온 도공의 숨결

문성환(박문초 4학년)이와 연지웅(같은학교 4학년)이는 친한 친구다. 자연스럽게 엄마끼리도 흥취물이 없는 사이가 됐다. 성환이는 프로바둑기사가 꿈이다. 인터넷 바둑 3단 실력이며 지난 3월엔 전국대회 4학년부 3위를 차지했다. 호기심이 많은 지운이와 동생 지민이는 손을 꼭 잡고 다닌다. 가방에 있는 게임기에 욕심이 갔지만, 오늘은 ‘타임캡슐’ 뚜껑을 열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다.

거친 손마디 느껴지는 곳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양으로 잎사귀를 흔드는 봄은 하루가 다르게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러지고, 향기가 가득하다. 녹청자 도요지 가마터는 파스한 봄별을 받아 푸른 풀밭이 되었다. 작은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아크릴 판 지붕은 온실과 같이 열을 흡수하고 습한 기운을 간직해 가마터를 유달리 훈훈하게 덥혀주고 있었다. 그래서 인지 땅바닥엔 잎자루가 넓어 서로 싸안고 피어난 질경이들과 보라색 깽깽이풀꽃이 질펀했고 가장자리엔 쑥 향이 물씬 퍼져있다.

옛 도공들이 흙 반죽을 하고 그릇을 빚던 곳, 일주일 내지는 열흘씩 활활 장작개비가 타오르던 가마터였다는 것, 지금은 빈터에 잡풀들만이 땅의 고마움을 아는 듯하다. 저 바깥 에덴동산과 같은 너른 잔디밭에서 전속력을 다해 날아오는 흰 공들의 위력에 역사는 앉은키를 한껏 낮추고 조용히 옛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녹청자 도요지는 서구 경서동의 한 골프장 안에 자리하고 있다. 탐방일행은 공을 피하느라 종종걸음을 치며 눈치를 보고 다녔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가 이런 곳에 있다니...’ 탐방에 참여한 엄마 유영소(36) 씨와 김희은(34) 씨는 속상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다.

“설마, 이곳이... 예전에 이곳 클럽에 온 적 있는데 이곳이 문화재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왜 사람들이 골프장 안으로 들어와서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나?’ 했어요.”

김희은 씨는 학창시절 박물관 배낭여행을 다닐 정도로 문화재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 특히 우리 질그릇을 좋아해서 결혼 혼수품도 가마터에 가서 직접 골랐다고. “상차림을 할 때, 김치는 꼭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내놓아요. 웅기가 주는 차가운 질감, 투박한 그릇의 인정미가 좋지요.” 플라스틱 김치 통이 아닌 항아리에서 꺼내는 김치는 아삭아삭 입맛을 돌게 만들뿐더러 후덕한 아낙의 치마폭처럼 풍요롭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청자발생의 근원

“여기가 녹청자 도요지란다. 그런데 도요지가 뭘까?” 이경희(45) 문화유산 해설사가 문자 막내 지민의 볼에 불룩한 바람이 차 올라왔다. 영 모르는 기색이다. “하찮은 웅덩이처럼 보이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1965년부터 1966년 5월까지 4차에 걸쳐 발굴 조사한 유적으로 10~11세기의 고려시대 녹청자 가마터이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청자가마터 중의 하나고 우리나라 청자 발생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가마 유적이라단.”

발굴된 기종은 대접, 완접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자배기, 반구장 경병 항아리가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에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출토품의 모두가 문양이 없고, 유약을 굵어 장식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 유약의 빛깔은 녹갈색과 암록색으로 불투명하고 광택이 없으며, 표면에 반점 같은 것이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부유층보다는 고려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서민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곳은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에서 생산된 녹청자를 생산한 곳이다. 이 도요지에서 생산된 사기 그릇은 배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 일대는 5~6기의 가마와 사기장인의 집터 등이 더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희 해설사는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들려준다.

“옛날 어느 상인이 이곳에서 사기그릇을 사서 배에 싣고 가려고 했는데 날이 어두워져 부득이 닻을 내리고 배 위에서 하룻밤을 쉬고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차츰 가라앉기 시작해서 살펴보니 글썽 수렁 위에 닻을 내렸지 뭐예요. 배는 점점 가라앉았고 선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대요. 다행히도 물에서 밧줄을 던져주어 그 줄에 의지해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는군요. 하지만 배는 계속 가라앉아 형체를 찾을 수 없이 파묻혀 버렸대요. 배에 실었던 물건과 자기들도 건지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후부터 마을에는 수렁에 빠진 사기배 얘기가 전해오고 있지요.”

“어머! 그럼 바닷속에 골동품이 잠자고 있겠네요?” 지운이 엄마가 문자 해설사는 “그렇지 않아도 전남 신안군 처럼 해저유물 발굴 작업을 하자는 여론이 있기도 해요.” 한다.

이 가마에서 주목되는 것은 완만하게 경사진 요상 표면에 흙으로 만든 원형의 도지미(개떡)를 배열하고 있는



대장암이 늘고 있다

글 _ 박현철(숙편한 내과 433-3500)

최근에 대장암의 빈도가 계속 증가하더니 이제는 위암, 간암, 폐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은 암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두 환자는 우리가 왜 대장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50세의 남자가 약 3개월 전부터 아랫배가 불편하고 변이 시원치 않으며 약 1주일 전부터는 변을 보기 힘들어 내원하였습니다. 대장 질환이 의심되어 장내시경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불행하게도 S결장에 발생한 대장암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62세 된 재미교포 한 분이 대장 검사를 위하여 내원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기본 검사를 이미 받으셨고 그곳에서는 내시경검사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고국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미루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술을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였는데 하행결장에서 직경 1.5cm 가량의 용종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선종이었으며 많이 진행되어 암이 되기 직전의 혹이었지만 내시경으로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대장암을 사전에 예방한 것입니다.

대장암은 암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대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혈변이나 빈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체중감소가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지만 가스가 많이 차며 배가 불편한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만 갖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대장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평소에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과식을 자주 하거나 장기간 대변이 고르지 않고 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대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었다면 증상과 관계없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한번쯤은 대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에 따라 증가하며 어느 정도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증상이 뚜렷해지기 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용종의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만이 대장암의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대장검사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수면 무통내시경으로 고통 없는 내시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대장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안내표지판을 보며 '예습' 하는 일행 2 '여기서 도공들은 토기를 구웠겠지...' 3 사료관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일행들

특수한 양식이다. 도지미란 자기를 굽기 전에 그릇의 굽이 직접 요상에 닿지 않도록 마련한 굽 받침을 말하는 것. 굽 받침은 모양이 마치 말굽 모양으로 앞쪽이 두텁고 뒤쪽은 얇게 빗어서 경사진 요상위에 두꺼운 쪽을 아래편으로 놓아 그릇이 평형으로 놓이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이러한 양식의 도요지가 일본에서만 발견되어 일본은 독자적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가 발굴되어 우리나라의 도요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2도의 경사면에 만들어진 이 가마는 길이 7.3m, 폭 1.05m, 봉통(아궁이) 폭 1.2m로 보기 드문 소규모 가마이다. 녹청자란 거친 태토(자기를 만드는 흙에 모래 등 이물질이 섞여 있음) 위에 녹갈색 유약을 발라 구운 자기로서 녹갈색 색상을 띄고 있는데, 구운 후 기공이 많이 생기는 등 유면이 고르지 못한 조질의 자기를 말한다.

문화재 탐방은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재미있어 한다. 안내표지판과 소책자가 전하지 못하는 그 뒷얘기들을 해설사는 마당에 널부러진 자기의 파편을 주워 담듯 천천히 들려주었다.

“경서동 원주민들은 이 일대를 깊이 파보면 문화적인 가치가있다고들 해요. 이미 개인 사유지가 되어버려서 손을 못 대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은 간혹 사료관을 찾아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아련한 추억을 털어놓고 가시지요. 옛날에는 산을 넘어야 동리를 가는데 숲쟁이들이 모여 살았고 숯가마가 있었다고. 그래서 숯 골 어딘가 파보면 이곳 전시품 이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증명할 길은 없지만 아쉬워서 찾아옵니다.”

일행들도 시나브로 역사가 없어지는 현실이 아쉬웠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위대하고 큰 흔적들만 역사의 발자취로 획을 그을게 아니라 적게는 아름다움 없어지는 작은 역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활활 타오르던 장작 불꽃이 시들고 열이 내리면 웅기가 태어난다. 갓 구워낸 향아리처럼 일행들은 한 끼 밥보다도 유용한 질그릇의 희망을 가마 안에 한 가득 구워내고 싶어 했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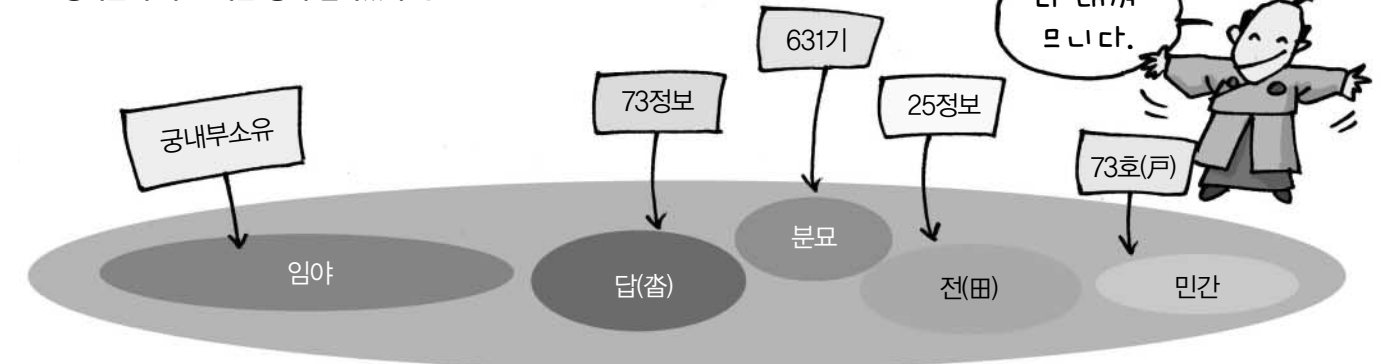
도요지 인근에는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있다. 사료관 1층에 들어서면 먼저 녹청자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밀랍인형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흙을 개고 물로 개어서 자기를 빚는 모습을 디오라마 기법을 이용해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도자기의 변천과정과 역사 등을 설명한 패널이 전시돼 있고 한쪽 구석에는 이 부근에서 발굴된 녹청자와 그 복제품이 전시돼 있다. 녹청자를 제대로 보려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을 찾아야 하는 점이 좀 아쉽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대접을 비롯해 완접시, 자배기, 향아리 등 경서동에서 출토된 녹청자 2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1층이 감상공간이라면 2층은 실습공간이다. 2층에는 방문객들이 직접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작은 공방이 있다. 흙덩이를 물레 위에 놓고 빙빙 돌려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를 만들어 보고 흙가래성형, 토우만들기, 손도장찍기, 핸드페인팅, 악세서리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563-4341, 560-4564)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목장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그 영역은 무려 10여만 평에 달하였지요.





조금 있으면 이 방의 주인을 위해 태양은 마음껏 붉어 버린 장미의 황혼을 보내 주겠지. 서쪽 시가지가 내다보이는 창문, 그래서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죽음을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장미 가시를 아니 떠올릴 수 없다. 패혈증보다 무서운 암적색이다. 그래서 또 코피가 날지 모른다. 별이 날아들지도 모른다. 잉잉거리는 머릿속, 비틀거리며, 누군가 꼭, 버림받아 쓸쓸하게 계단을 돌아 내려가야 할 4월. 슬픈 영혼은 독을 마신 듯, 장미차(薔薇茶)의 향기에 눈멀어야 한다.

벽에는 한 다발 꽃 이파리가 말라간다. 거칠게 빛은 머리 카락의 물결, 그 굵은 쥔, 푸른색 크리스탈 귀고리가 찰랑거리는 여교수를 누구라 이름해야 하나? 아, 이집트! 크는 신전의 하토르,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신전 원주(圓柱)에 양각된 그 여인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모른다. 작은 종지 잔에서 새콤하게 풍겨 올라오는 냄새는 분명 산딸기 향이건만 목요일 오후는 마른 장미 이파리 때문에 검붉고 어지럽다.

몹살 기운 때문일 것이다. 맞다. 이런 몽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놈의 미열 때문이다. 아니, 장미차를 연거푸 닉 잔씩이나 먹여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대낮」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아, 대낮!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붉은 꽃밭 사이 길이 있어//햇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로,/임은 달아나며 나를 부르고...//강한 향기로 부르는 코피/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서정주, '대낮' 부분)

그래서 이렇게 쇠르르 몸에 소름이 돌듯 열이 밀려 오르는 것이다.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잡는 여교수 이윤희(李兪姬) 씨는 이 봄날 하늘색 그대로인데,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온통 하늘색인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다. 정말이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화나라의 암적색 장미

이윤희 교수





햇빛 속에서 보는 이윤희 씨의 모습은 다르다. 이런 패션을 스포티 룩이라고 하는지. 정장은 틀림없이 아닌 데도 그 침착하게 가라앉은 하늘색이 그윽한 멋을 낸다. 속에 받쳐 입는 티셔츠 같은 옷도 자기가 직접 그린 블루 튜립을 프린트한 하늘색 계통이어서 더 그렇다. 이 교수는 물론 암자색이건, 녹색이건, 검정이건 소화해 낼 것이다. 더구나 사십 후반의 티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 의복을 한껏 소화해서 입는 그런 센스가 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의상 모델 같다. 그 때문에 귀고리가 파랗게 물이 들어 버린 것이고, 또 167센티의 늘씬한 신장(身長) 밑의 구두도 따라서 물빛이 된 것이다.

그러나 눈부신 햇빛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이 교수는 또 다른 모습이다. 무용과 선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늘씬하고 어여쁜 용모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풍성한 머리 술, 검고 깊은 눈동자,

햇빛 속에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음영이 지는 콧날, 입술, 길고 가는 손가락,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시원한 이마, 맑은 목소리, 거의 흠잡을 곳이 없는 미인이다. 화를 내면 그것도 시만큼 아름다울까. 햇빛이 몹시 눈부시다.

이 미인이 인천 재능대학 아동문학과 교수이고 동화작가이고 아동잡지 『아침햇살』발행인이다. 여러 해 전에 어린이문화대상(문학부문)을 받기도 했고 『꼬마 요술쟁이 꼬슬란』 『네가 하늘이다』 『컴퓨터 나라의 왕자』같은 동화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윤희 씨의 말을 들으면 외모와 전혀 다르게 천하에 다시없이 느긋하다. 그리고 참으로 삶을 살지게 산다. 얼마나 느긋하면 자기 인생의 5시간 29분을 춘천 호반에 덜렁덜렁 달리면서 버릴 수 있을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만하다. 2002년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춘천 국제 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완주했던 것이다.

“그냥 뛰었어요. 천천히...”

마라톤을 이야기하며 생글거리는 웃음 속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숨어 있다. 교통 통제 한계 시간인 5시간 30분보다 다행히 1분을 앞서 있어서 당당히 경찰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느긋함은 부지런함과 통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부지런함은 그것이 곧 미인이 되는 길인지도 모른다. 인천으로 이주해 와서는 매일 새벽 자유공원에서 에어로빅으로 몸도 만들고 또 인천대공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으로 활동하며 잠시도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코 성급한 뽀박질이 아니다. 이 교수는 느긋한 달리기를 통해 자신을 벚꽃 잎 같은 미인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 이런 여성을 전에 만나 본 적이 있다.

“뭉치 룬자예요. 이런 글자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획수는 적어도 이런 어려운 ‘룬’ 자를 이름에 넣어 주신 이는 틀림없는 할아버지이실 것이다. 그러나 여교수는 자기 이름의 ‘룬’ 자를 이렇게 재치 있고 재미나게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옆방의 친절할 남자 교수는 ‘꽃 뭉치 룬’ 자라고 거든다. 시적이다.

실제로야 ‘뭉글 룬’ 자, 혹은 ‘조리세울 룬’ 자인데 뭉글다는 의미를 뭉치로 둘러말한 듯싶다. 그것을 또 꽃 뭉치라고 말하는 재능대학 아동문학과 교수들의 재능이 재미있다. 한 번 더 돈뭉치라고 말하며 웃는 여자. 그런 재주가 내게도 좀 전해졌으면.

이윤희 교수는 서울 토박이다. 자랄 때 이쁜 용모 때문에 잡지 표지 모델 같은 것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의 꿈은 작가였다. 그것은 부친이 못 이룬 꿈이기도 했다. 공무원이었던 부친은 한국전쟁으로 작가의 꿈을 접은 그런 분이였다. 그런 피가 그녀에게 흐른 것일까. 이 교수는 그것을 이루었다.

이 교수의 집은 어떨까. 가정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입을 열지 않는다. 물론 털어놓을 이유도 없다. 책상 한쪽의 “부자가 되는 길”은 좀 뒤의 아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은은한 미소 7단계”를 거울에 붙여 놓고 매일 들여다본다. 그렇게 비슷한 연령의 남편과 초급 장교가 된 아들 하나가 그녀의 가정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된다.

“군대에 있는 아들 빼고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편하기 위해 과천에서 인천으로 왔거든요. 이제 인천서 살래요.”

이 교수의 방은 교수실이 아니라 동화 속이다. 고구마를 굽는 냄비 비슷한 것, 소리 지르듯 화분 속에서 희고, 붉게 목을 뽑은 꽃들, 벽에 걸린 꽃시계, 둥근 화환, 난초분, 초콜릿 바구니, 사탕그릇, 과자, 구석에는 언 빵이 들어 있는 냉장고가 자리잡고 있다. 그 언 빵을 A반, B반 아이들에게 가끔 먹이겠지. 녀석들은 행복할 것이다. 비록 얼음덩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뒤쪽 창문에는 녀석들 얼굴이 빼곡히 들어찬 사진 출석부가 붙어 있다. 좌우 양쪽 벽은 책꽂이다. 몇 백 권의 동화책이 죽 꽃혀 있어 마치 대여점 같은 느낌을 준다. 수백 권의 책이 그 두 벽과 책상 위, 그리고도 모자라서 공간이다 싶은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상상력 덩어리들.

거기서 한 권을 얻어 든다. “이윤희 선생님이 인내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주는 책”이라는 『반허락』 여우 우화』다. 그래 급하지 말자. 절대로 급하지 말자. 대여점. 상상력을 빌려 주는 이 가게에 가끔씩 들러 새 상상력을 조금씩 빌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돌아가자. ‘눈이 닳은 영화 포스터’에 오래 시선을 주지 말고, 장미차 향기에도 코를 막고, 머리도 아프지 말고 돌아가자. 오늘밤엔 난데없이 꿈에서 무슨 ‘말아톤’을 달릴지도 모른다.



어릴적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옛날 김밥 한줄 한줄엔
연로하신 어머니의 정성이 늘
가득 담겼습니다.

그러나 철부지였던 난
김밥색깔에 불만이었고
말아서 ‘툭’ 터져버린 김밥모양에
울음을 터 뜨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이 원치
주머니에서 씌지돈을 꺼내시어
“니! 소풍 가서 다 사먹으래이”



지금은 그 추억의 돈이
황금보다 귀중한 어머니의 ‘사랑’이란걸
알았습니다.

터져버린 김밥의 감사함과
철부지인 울고 받은 사랑의 돈.
다시 어릴적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남구 주안4동)

흙투성이 김밥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의 소풍날이었다. 그 때는 엄마의
몸이 많이 좋지 않았었고 오빠 언니들도 사회에 나가고, 또 공부
하느라고 바쁘고 해서 몸이 안 좋으신 엄마를 도와 열심히 김밥
을 싸서 동생과 함께 먹을 도시락에 담아 언니인 내 가방에 넣
었다.

소풍 장소는 학교에서 1시간을 걸어야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이
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맛있는 김밥을 먹는다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메고 갔다.

드디어 점심시간! 동생과 함께 모래 위에 앉아 도시락을 열고 먹
으려는 순간 동생이 가방 안의 음료수를 꺼낸다고 가방을 들어
김밥 위를 거쳐 자기 쪽으로 가져갔다.

다음 순간 김밥을 두 번째 먹는데 뭔가 씹히는데... 정말 먹을
수가 없었다. 모래가 김밥위로 술술슬... 정말 그림에 떡이라는
말을 이런 때 사용하는 건가. 나오는데로 욕을 했다. 동생한테.
그리고 울었다. 배가 고파서. 맛있는 김밥을 먹지 못해서 한 대

때렸다. 동생도 울었다. 아파서, 미안해서, 배고파서...

그 날 그렇게 우리 자매는 제일 좋은 소풍을 제일 슬프게 보냈
다.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동생에게 미안하다. 욕해서, 때
려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이상순 (서구 당하동)

비빔밥 도시락

고2 새 학기가 되고 얼마 안돼서 학교에서 봄소풍을 가게 되었
다. 친구들과 나는 봄소풍에 무얼 가져갈지 한참을 고민했다. 매
번 수학여행이나 소풍 때마다 싸가는 김밥에 지겨워진 우리였기
에 좀더 색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 저번엔 참치 씬을 해서 먹었
고 이번엔 비빔밥으로 정했다. 주재료는 참치, 김치, 콩나물, 여
러 가지 반찬, 상추, 고추장 그리고 커다란 양푼이었다.

드디어 소풍날. 전날에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지
만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이날 소풍은 독립기념관을 가는
것이였다. 모두들 신났고 들떠 있었다. 벌써부터 김밥을 꺼내서
먹는 아이들, 교복에 잔뜩 멧을 내고 온 아이들... 유난히도 사
진 찍는 걸 좋아하는 우리들은 탱크 위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전쟁의 흔적을 담은 이곳은 우리들의 웃음
소리와 어우러져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럽지 않았다.

한참을 웃으며 뛰어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개인시간이 주어
졌다. 우리는 아까 봐두었던 정자에 앉아서 싸온 점심을 꺼냈다.
큰 양푼에 밥을 넣고 참기름, 고추장, 참치, 콩나물, 김 등 여러
가지를 넣고 손가락으로 쓱~쓱~ 비볐다.

“우와~ 맛있겠다!!” 우리는 먹음직스런 비빔밥을

보며 대단히 만족해 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고 우리 중 한명이 큰
소리로 “코리아 비빔밥~!”이라고

말해서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기도 했다. 저쪽 편에서 김

밥을 먹고 있던 친구들이 와서

비빔밥이랑 김밥을 바꿔 먹었고 푸짐한 양푼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싸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

분명 기억에 남을 소풍이였다.

김동숙 (서구 가좌동)



생태기행에서 배운 교훈

작년 가을 우리반은 소풍 겸 생태기행을 하러 무의도에 갔다. 엄
마께서 예쁘게 싸주신 꼬마김밥과 간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배를 타고 무의도에 도착하니 산과 바다가 정말 환하게 보였다.
처음으로 우리는 나무이름을 적어서 빙고게임을 했다. 생강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뽕나무, 산초나무... 이 게임을 하고 느낀 것
은 이 나무들만큼은 자신있게 알 수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집에서만 먹던 ‘생강’은 직접 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이 독해서 얼른 코를 가리기도 했다. 또 ‘난’에다 수태를 넣어
화분도 만들었다. 난이 갇힌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 식물
도 생명이라고 하던데...

난 다짐했다. ‘예쁜 친구야 너를 끝까지 아끼고 잘 자랄 수 있게
지켜줄게’라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김밥을 먹으면서 많이 느
끼고 정말 식물 하나 하나 잘 자라고 있으니까 자연은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이, 또 내가 숨을 쉬듯이 식물들도 항상
숨을 쉰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꺾지 않는
은지가 될 것을 나 자신과 약속하며 좋은 추억의 소풍이 되었다
고 뽕긋 웃어본다.

박은지 (구월서초등학교 4학년)

부스러진 빵

그 날은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봄 소풍을 가는 날이었
다. “선미야 옛 다.” “어? 이거 돈이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담백 담은 얼굴을 뒤로하고, 복사꽃이 파릇파
릇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는 논두렁길을 단숨에 달려서 읍내
까지 왔다. 가방 속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께서 정성 들여서
싸 주신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사이다 한 병도 들어 있었다.
게다가 호주머니 속에는 10원짜리 동전들이 내가 팔짝팔짝 뿔
때마다 장단이라도 맞추는 낭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마침 학교
근처 빵 가게를 지나게 되었다.

날마다 눈으로만 먹고 침을 삼키던 커다란 보름달 빵이 눈에 들
어 왔다.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가게에 들어서서 보기에도 먹음
직한 빵을 한 개 집어 들었다. 주인아주머니께 동전 10개를 내
밀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10원짜리 한 개를 도로 내 손에 쥐
어 주셨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와서 정말 신나고 즐
겁게 소풍을 갔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보물찾기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침
에 산 보름달 빵은 그냥 만지작거렸을 뿐 먹지는 않았다. 왜냐하
면 집에 계신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래서 빵을 그대로
가져다가 할머니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커다란 미루나무에 걸렸을 무렵에야 나는 집으로 돌아 왔
다. 뒷밭으로 달려갔더니 할머니께서 시금치를 다듬고 계셨다.
할머니께서 소풍 잘 다녀왔느냐고 물으시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가방을 통째로 쏟아 보름달 빵을 꺼내어 내밀었다. 그
런데, 아뽕싸 이게 웬일인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버릴 것
같았던 빵이 몽땅 부스러져버린 것이 아닌가? 할머니께서 빵을
받아 드시면서 “예구, 내 강아지. 이걸 샅으면 먹지. 뭘 가지고
와. 할미 주려고 가져 왔구먼. 기특하기도 하지”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두르고 계시던 앞치마를 풀어서 흙이 묻지 않게
갈아 놓으시고는 부스러지다 못해 가루가 된 빵 봉지를 뜯어서
공공 뭉쳐서 내 입에 넣어 주셨다. 나도 빵을 공공 뭉쳐서 할머
니 입에 넣어 드렸다. 할머니의 주름 진 얼굴에도, 내 얼굴에도
웃음이 묻어 나왔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였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다시는 빵을 사 드릴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셨다. 지금도 나
는 그 때 그 날의 봄 소풍을 잊을 수가 없다.

김선미 (남동구 만수3동)

소풍? 그래도 가야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초등학교 5학

년 소풍 때 일이다. 소풍 가기

전날 들뜬 기분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우리학교 운동장엔 타이어를

반쯤 땅에 줄지어 박아놓은 놀

이기구가 있었다. 거기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조금 큰 타이어를 손 잡고 뛰어 넘는데 아차!!! 그 커다랄
고 묵직하고 단단한 타이어에 내가 오른쪽 이마와 눈두덩이를
박은 것이다. 머리가 하얗고 세상이 노래지는 기분. 벌이 번쩍번
쩍했다. 진짜 아차하는 순간이였다.

웁신거리는 이마를 잡고 집에 왔다. 엄마가 멍이 들거라고 하시
는 거다. 내일 소풍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 주위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누구
한테 제대로 한방 맞은 사람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그 물골을 하
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소풍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 난 갔다.!!! 그때나 지금
이나 생각만 해도 설레고 들뜨고 신나는 일이 소풍이니까!!!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없는게 아쉽긴 하지만...

세상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멋진 소풍으로 좋은 추억 만들
길 바란다.

김성진 (남동구 간석동)

다음 달 테 마 는 ...

다음달은 테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주제로 보내주신 글과 사진을
엄선해서 게재합니다.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
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
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5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
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고지식했던 30년전 소풍날

소풍가기 전날 저녁 부엌에서 엄마는 밤과 계란을 삶아놓고 아침에는 김밥을 싸느라 분주하다. 그 옛날에는 국민학교 소풍이면 온가족이 나들이 길이었다. 그런데 소풍날 아침 국민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전날 선생님께서 가족들은 오지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 가야 한다고 우긴다. 할 수 없이 엄마는 무언가를 하나 들려준다.

여자아이는 따라오지말라고 당부하고는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른 애들은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석남국민학교에서 불로목장까지 가는 동안 울고 싶었다. 나만 혼자라서... 선생님은 우리들만 가는 거라고 해놓고 엄마랑 같이 온 애들은 혼내지도 않고... 그때 그 기분이란... 선생님에 대한 원망,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은 엄마에 대한 원망...다른 애들이 무지하게 부럽고 혼자 앉아서 도시락 먹을 생각을 하니 눈물까지 나오려고 한다. 그렇게 걸어 걸어 도착한 곳에 엄마가 보인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모도, 너무 좋아서 팔짝 뛸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엄마한테 오지말라고 눈까지 흘기던 내가 너무 창피하고...

30년 전의 소풍날이었다. 고모와 엄마는 가끔 그 얘기를 한다. 날 놀리시려고... 그렇게 고지식한 여자애가 지금은 그만한 아들을 키우고 있다. 현대 다행한 것은 그 아들은 그 엄마의 고지식함은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마~~~ 고지식한 딸내미 키우느라 힘들었지. 사랑해!!!

박미아 (연수구 연수동)

잊지못할 유년의 사진 한장

여름과 겨울에 놀러간 일은 기억에 많지만 봄에 놀러간 일은 그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겐 잊지 못할 과거의 한 조각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때 단발머리 언니들과 뽀뽀 머리인 오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다섯이서 꽃이 만발한 어린이대공원으로 놀러간 적이 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고, 우리 집 역시 그러했다. 우리집 보물 1호인 카메라를 메고 나들이를 갔다. 공원에 뽀뽀 한창이었고 소풍은 인파로 가득했다. 아버지께 이것저것 사달라고 보냈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날의 우리 가족 소풍은 마지막이 되어버렸다. 가족사진만이 그날의 증거가 되어 사진첩에 남아있어 봄이 시작되는 길목에 서면 그날의 봄나들이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께 죄송스럽고 우리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입가에 미소가 넘쳐흐른다.

강영숙 (부평구 삼산동)

소풍간다네

예쁜찬합에

아기자기 예쁘게 담은 도시락

굽이굽이 오르는 오솔길

옥수수밭이 하늘하늘

물결치네

산으로 가자

시원한 바람아 불어라

젊은 詩人들을 따라서

나도 산을 오른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세상이 평온하네

산새가 반겨주고

풀벌레가 합창을 하네

이 시간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

세상 근심을 묻어두고

즐겁게 노래 부르자

김하주 (연수구 선학동)

치마입고 산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다. 봄 소풍 전날 녹색 빛의 멜빵 원피스와 하얀 블라우스를 선물 받았다. 어찌나 기뻐던지 내친김에 더 떼를 썼고 드디어 검정 구두에 머리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맞출이었다.

당장이라도 입고 나가 자랑하고 싶은데 하루 밤을 자야한다는게 나에게는 별서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졌다.

소풍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산으로 가는데 무슨 치마에 구두냐며 엄마부터 셋째 오빠까지 차례로 핀잔을 쳤지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렇게 차려입고 학교로 갔다. 치마입고 나타난 사람은 나 하나... 하지만 난 가족지 않았다. 산도 잘 올라갔고 보물도 찾아 상도 받았고, 장기도 선보였으니까.

지금도 가끔 치마입고 맨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에 미소가 번진다. 아직도 치마 앞의 작은 단추가 봄 햇볕에 반짝이던 기억이 선명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소풍은 나에겐 의미있는 해프닝이었다.

장수진 (남동구 구월2동)



경주 하이킹

벌써 3년전의 모습이에요. 대학 친구들과 경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자전거를 끌고 산 하나를 올랐었는데, 이것만 이겨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죠. 따듯한 바람을 맞으며 20분 넘게 내리막을 달리는 기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보문단지를 돌아 보문호에 자전거와 함께 빠져버린 친구의 사고에 하이킹을 즐기는 아저씨 두분의 도움을 받고 기념촬영~

윤지영 (남동구 구월동)



소풍엔 인천대공원이 '딱'

가족과 인천 대공원에 소풍나왔다. 산책을 하고 나니 배꼽시계가 '밥줘' 한다. 간식으로 컵라면을 시키고 언제 먹을 수 있나 기다리며 엄마와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다.

이규석 (부평구 산곡2동)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15년만에 뉴욕에 사는 동생네가 셋던 우리 아빠. 이렇게 맛있는 바닷가재인줄 몰랐다고 술도 안쉬고 허겁지겁... 혼자서 반상자를 다 드셨대요. 이렇게 티를 내야 하는 건지... 무척 행복한 일 같습니다.

임세자 (연수구 연수1동)



6학년 소풍때

지금도 송도유원지는 좋지만,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꼭 가던 소풍지였던 송도유원지네요. 요즘도 여름만 되면 한번은 꼭 가는 송도유원지에서의 옛날 사진입니다. 6학년 봄소풍으로 갔던 송도... 그때 유원지까지 걸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명자 (부평구 부평2동)



아기호랑이의 소풍

아기호랑이의 첫 외출이에요. 아직 돌도 안된 우리 아가... 인천대공원에 소풍 나왔지요. 여러분~조심하세요. 인천대공원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최주연 (남동구 만수4동)



설악산에서

고등학교때 친구들과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참 어설픔게 연출을... 보고싶다 친구들아.

한아람 (부평구 삼산동)



단체가 좋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풍 단체 사진입니다. 처음 입학해서 막 처음 사귄 친구들과의 첫 사진. 지금 보면 이름이 아른거리는 친구도 있고, 지금까지 매일 얼굴 보며 사는 친구들도 있네요. 기회가 되면 반창회를 열고 싶네요.

한정아 (부평구 청천2동)

제1회 인천디자인포럼

인천디자인전문회사협의회(IDCA)와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핵심역량으로서의 디자인과 인천디자인 산업의 현주소’를 주제로 인천디자인포럼이 열립니다.

인천 디자인전문회사 대표 및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강연 및 정보교류, 사례 발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디자인 문화 및 공감대 구축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열립니다.

• Section1- 주제발표

-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 - 김철호(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 인천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황익식(인천시 경제통상국장)
- 인천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김성희 교수(인천전문대)

• Section2- 토론

〈인천디자인의 현주소〉: 좌장 고창균 교수(가천길대)
 김성숙(시의원), 인천디자인전문회사대표, KIDP 박희면 본부장

문의 _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260-0224)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5월 홈경기일정

5월 1일(일) 오후3시	인천 vs 광주	문학경기장
5월 8일(일) 오후3시	인천 vs 전북	문학경기장
5월 15일(일) 오후3시	인천 vs 포항	문학경기장
5월 18일(수) 오후7시 30분	인천 vs 울산	문학경기장
5월 28일(토) 오후7시	인천 vs 전남	문학경기장

※무료입장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입장카드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 레플리카

판매장소 : 구단사무실, 구단용품 매장
 (문학경기장 동문매표소 앞)
결제방법 : 현금, 온라인입금, 신용카드
 (입금계좌 : 기업은행 434-010450-04-037 / 예금주 :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레플리카 + 홈경기입장카드 = 45,000원
단체구매 : 10벌 이상 구매의 경우 택배비 구단 부담
구매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사무국 (423-1500)

MRI 보험 적용됩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우선 모든 부위의 암 진단시 MRI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암·위암 등 소화기계통 암과 폐암·유방암 등은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타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MRI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뇌양성종양과 뇌혈관질환 진단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급성출혈 등 응급시에는 CT검사가 더 적절하므로 CT등을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간질·치매·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수두증·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 척수손상·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다만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등 나머지 질환 진단시에는 MRI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인형극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성교육

우리시의 후원으로 여성민우회가 우리시에 사는 여성들에게 재미있는 성교육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일시 : 5월 9일 ~ 6월 27일(월, 수 주 2회)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문의 _ 인천여성민우회 (525-2219)

노래교실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에서 노래교실을 엽니다. 이영심 선생님과 함께 하는 노래 교실은 최고의 써라운드 시스템인 음향기기와 기타 반주에 맞춰 즐겁고 흥겨운 오락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12시
- 장소 : 연수동 흥익크리스탈부페 4층 웨딩홀
- 회비 : 2개월 10,000원

문의 _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 (815-5529, 016-273-5529)

인하대병원 무료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소아탈장의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공개강좌를 엽니다.

- 일시 : 5월 31일(화) 오후 3시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소아탈장의 치료
- 강사 : 인하대병원 외과 최윤미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 무료 주차권 발급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무료로 퍼머해드립니다



고정현헤어(원장 고정현)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60세 이상 할머니 등을 대상으로 고급 헤어 퍼머와 염색을 무료로 시술해 드립니다. 해마다 5월 가정의 달

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정현헤어 본점(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대학빌딩 3층)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에서 보내주는 관심으로 고정현헤어 2, 3호점(롯데마트점, 월마트점)까지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올해로 1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 _ 고정현헤어 (506-3256)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상설단속합니다

건설교통부의 불법차량 상시단속 방침에 따라 자동차의 불법개조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국 일원에서 동시에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전국 16개 시·도의 관할지역내에서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주차장 또는 주차된 불법 구조변경(개조) 자동차를 적발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적발신고서에 불법자동차 사진을 인쇄한 후, 15일 단위로 관할관청에 통보하며 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적발안내문을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에 부착하여 적발사실을 안내합니다. 관할관청에서는 불법차량 확인절차를 거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미 이행 시는 고발 조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유형

- 안전기준 위반 부분은 각종 등화의 착색, 코팅, 등광색 지움, 등화의 색상 변경, 등화의 미점등 및 손상, 경광등의 용도별 규정색상 준수, 기타 등화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불법설치 조명, 타이어 과마모, 화물차량의 측면보호대 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 안전판 탈락 또는 손상, 배기관 열림 상태 등을 중점 단속

청소년문화체험 행사 참가하세요

인천예절원에서는 우리시의 지원을 받아 2005 청소년문화체험과 남동구 지원으로 남동가족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엽니다.



문의 _ 인천예절원 (464-8254)

- 불법 구조변경 부분은 승용차는 오픈 카, 소음기 제거 또는 변경,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재 구조물, 차체 하부를 10cm이상 현저히 높이는 경우, 광폭 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이며 승합차는 장의차, 구급차, 의료검진차, 도서관차 등을 상호 용도변경 여부, 우등고속 및 일반고속 상호 용도변경 여부, 화물차량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탐차, 탱크로리, 청소차, 기타 활어, 곡물,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차 등으로 용도변경 여부, 화물밴형 지프를 승용 지프로 용도변경 여부, 차축 및 푸셔액슬 추가 및 제거 여부, 기타 불법 경광등 설치, 화물차를 특수차량(견인랙카)으로의 용도변경 여부 등입니다.
- 등록번호판은 식별이 곤란하거나 봉인이 탈락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도 불법운행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 _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833-5000)

시청에서 국선도 배우세요



있는 시민여러분은 시청에서 국선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 5월 1일 ~ 30일
- 모집대상 : 20세 이상 여성회원
- 모집인원 : 60명 (선착순 마감)
- 수련장소 : 시청 지하 구내매점 옆 체력단련실
- 일반인 수련 일정 (월요일 ~ 금요일 매일 2회)
 - 1부 : 오전 10시 ~ 11시15분 (75분)
 - 2부 : 오후 2시 ~ 3시10분 (75분)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23)

미추홀문화학교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 순수 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을 합니다.

- **접수기간** : 5월 2일 ~ 6월 11일
- **강좌기간** : 6월 7일 ~ 8월 27일
- **무료 특별 기획강좌** (3개월 강의)
 - DIY가구공예, 생활꽃꽂이, 테이블 데코&꽃장식, 부케&꽃포장, 선전꽃꽂이, 데생&수채화, 인물화, 서예 교실, 문인화, 어린이 서예교실(한문/한글), 성악교실, 요들나라(발성반), 어린이 풍물,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 촬영 교실, 일어 회화, 어린이 한자교실, 중국어 회화, 니하오! 어린이 중국어
- **정규 유료 강좌** (3개월 60,000 ~ 90,000원)
 - 생활조형 공예 : 칼라믹스, 에그아트, 데코파주 & 웨도우박스, 스텐실, DIY가구공예, 목공예, 비즈(구슬)공예, 어린이 도자기교실, 생활도자기&응기, 고무찰흙, 클레이 애니메이션, 풍선아트
 - 섬유패션 공예 : 여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홈패션), 커튼 만들기, 홈패션을 이용한 아기용품 만들기, 퀼트, 패션페인팅, 생활양재
 - 한지/종이 공예 : 전통한지공예, 종이공작
 - 화훼 : 나만의 녹색정원 토피어리, 생활꽃꽂이, 부케 & 꽃포장, 꽃장식 & 테이블 데코, 선전꽃꽂이, 미니정원, 조화를 이용한 꽃장식 & 선물포장
 - 미용 : 내가 만드는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미술 : 수채화, 유화, 데생&스케치, 어린이 표현미술, 어린이 열린미술, 어린이 데생 & 수채화, 홈스케치, 예쁜 손글씨 POP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힙합댄스, 어린이재즈댄스, 뽀빠이 & 나이트댄스, 인천향토 춤 사위, 어린이 댄스스포츠
 - 노래·악기·국악 : 동요, 성악, 요들, 플루트, 기타교실, 바이올린, 클라리넷, 하모니카, 오카리나, 리코더, 풍물교실
 - 어학 : 일어회화, 중국어 회화, 니하오! 어린이 중국어 회화, 뮤지컬 잉글리쉬
 - 건강·스포츠·교양 : 키 크게 하는 성장 클리닉, 다이어트 건강요가, 골프, 인라인 스케이트, 사진촬영교실, 수필창작, 프리벨 가베 어머니 교실
 - 창의력/학습개발 : 프리벨 가베(은물), 하이파이 썸, 마인드맵, 상상력이 자라는 동화여행, 책읽기와 논술교실, 신문활용교실, 동화구연, 유리드믹스, 참포도나무 즐거움놀이여행, 키즈사이언스, 레고 닥타, 델타샌드 모래놀이, 책 읽고 글쓰기, 스피치& 리더십 교실, 해리포터 마술교실, A+과학나라, 버그박사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 www.mchart.co.kr)



청소년 동아리 디카 특공대 모여라~

화수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주변 환경의 모습들을 디지털카메라로 표현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용** : 체계적 사진촬영교육, 촬영의 실제, 사진전시회
 - **모집대상** : 중학생이상 청소년
 - **모집인원** : 선착순 7명 (직접 방문접수 원칙)
 - **접수기간** : 5월 14일까지
 - **준비물** : 디지털 카메라 (없어도 상관없음)
- 아울러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그림 글짓기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5월 7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우천시 일주일 연기)
 - **장소** : 송현근린공원
 - **대상** :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 **내용** : 그림 그리기, 글짓시(운문, 산문) 영화포스터 기념사진, 페이스 페인팅, 좋은 책 전시회 등 주변마당 진행
 - **주제** : 당일 발표
 - **시상내용** : 대상(2명), 최우수(6명), 우수상(8명), 특선(14명), 입선(50명)

- **시상훈격**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수상자 발표** : 5월 31일 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 **시상일시** : 6월 3일(금) 오후 3시 동구청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풋살대회 열립니다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잠재된 능력을 계발·향상시키며,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서 풋살축구대회를 엽니다.

- **일시** : 예선 5월 21일(토) 오후 2시~ / 본선 5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연수체육공원
 - **대상** : 연수구 지역내 중학생 및 인천 지역내 중학생 16개팀 (한 학교에 2팀까지 참가 가능)
 - **신청방법**
 - ① 방문접수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 ② 전화접수 : 833-2010-2
 - ③ 팩스접수 : 833-2013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5명과 교체선수 2명 총 7명으로 한팀을 이루어 신청.
- **신청기간** : 5월 7일까지
 - **시상내역** : 연수구청장상 1, 2, 3등, 아차상, 다득점왕+상품
- 문의 _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833-2010~2)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특강 열립니다

우리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슬기롭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교육 특강' 강연회를 엽니다.

- **일시** : 5월 25일(수) 오후 1시30분 ~ 5시
- **대상** : 학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자 300여명
- **장소** : 인천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시청각실)
- **내용**
 - 부모역할과 자녀심리 (김명순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우리자녀에게 맞는 학습전략 (박병관 : 한국심리자문연구소 소장)
- **참가비** : 무료, 참가자에 한하여 자료 및 음료수 제공
- **참가신청** : (전화) 429-5562,3 (팩스) 429-5569
- **참가마감** : 5월 23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된 자녀의 학교와 학년

문의 _ 인천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 (429-5562,3 www.inyouth.or.kr)

제5회 흥예문 가는 길! 토요일외거리전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인천을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축조물로 도시적 전통과 분위기를 가진 흥예문을 주제로 독창적이고 고유한 성격을 가진 특화된 예술축제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다수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토요일외거리전을 개최합니다.

인천 유일의 동혈승지(同穴勝地)로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터로 이용되던 흥예문 입구 은행나무 길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 광장으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름답고 푸르른 오월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일시** : 5월 7일 ~ 28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동인천 구/인천여고 은행나무길)
- **개막식** : 5월 7일 오후 2시
- **전시회내용**
 - 공예 : 생활양재, 데코파주, 웨도우박스, 패션페인팅, 고무찰흙, 스텐실, 퀼트, 종이공작, 에그아트, 홈인테리어, DIY가구공예, 목공예, 생활자기&응기, 비즈공예, 전통한지공예, 토피어리, 풍선아트
 - 미술 : 문인화, 서예, 데생, 수채화, 유화, 홈스케치, 손글씨POP
 - 사진
 -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문의 _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 www.mchart.co.kr)

인천녹색연합 기후변화학교 열립니다

석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의 과다 사용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급격한 생물생태계 파괴,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이렇다간 50년 후 지구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열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천녹색연합에서는 <기후변화학교>를 열어 지구지킴이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5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오전 10시~12시), 총 8회
-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 :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원하는 인천시민 30명
- **참가신청** : 5월 20일까지 선착순 신청 *참가비 없음(교재 제공)
- **교육내용** :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관련 8강좌

문의 _ 인천녹색연합 (548-6274, 548-6574)



• 시연회 & 공연 내용 (무료)		
일 시		행 사 내 용
5월 7일	13:30	종이공작 : 카네이션 꽃 바구니 만들기 풍선아트 : 캐릭터, 꽃, 인형, 동물, 바구니 등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14:00	개막식 & 다과회
	14:30	길놀이&사물놀이
	15:00	목공예 : 컵받침 or 사각 접시 만들기 서예 : 전통 부채에 서예 그려 주기 문인화 : 전통 부채에 사군자 그려 주기 요들 공연
	15:30	리코더&오카리나 연주회
5월 14일	13:30	키즈사이언스 : 과학 실험 시연 및 배워 보기 페이스 페인팅
	14:30	길놀이&사물놀이
		퀼트 : 동전지갑 만들기
	15:00	웨도우박스 : 피터 래빗 컵받침 만들기 클라리넷 연주회
5월 21일	13:30	홈인테리어 : 미니 커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14:30	길놀이&사물놀이
		패션페인팅 : 미니 파우치 가방에 패션페인팅 하기
	15:00	생활자기&응기 : 물레를 이용한 작은 옹기그릇 만들기 플루트 연주회
5월 28일	13:30	해리포터 마술 : 마술 시연 및 배워보기 페이스 페인팅
	14:30	길놀이&사물놀이
		천연비누&화장품 : 립글로스 & 아로마 비누 만들기
	15:00	홈스케치 : 파스텔로 액자 그림 그리기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 공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약류 불법사용자에 대해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합니다. 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상담 장소 및 전화 _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860-4745~9, 국번없이 127)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

-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니다.
 -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오존의 농도가 높으므로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경기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실외운동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고 오후에는 자제해야 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용을 자제합니다.
 - 정오(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시간 대이므로 오존생성의 저감을 위하여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라디오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존경보(주의보)발령 시에는 발령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 오존경보(주의보)를 신속히 전파합니다.
 - 행정기관은 오존경보(주의보)발령 10분내에 모든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발령사항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방송기관은 오존경보(주의보)상황 접수 시 즉시 방송하여 시민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22)

사업 고민

좌~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세상 만들기 가족캠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간의 신뢰감 및 가족공동체성 회복 등 올바른 가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가족캠프를 엽니다. 캠프에 참가해 가족끼리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 일시 : 5월 28일(토) ~ 29일(일) 1박2일
-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 대상 : 가족, 청소년 (초등 3학년 이상 중학생 이하)
- 인원 : 80명(4인기준 20가족)
- 주요내용 : 과자집 만들기, 자전거 하이킹, 아빠요리 경연, 가족 사진촬영, 선택활동(풍물민요배우기, 수화, 보드게임), 예절교육, 영화상영, 등산, 가족장기자랑, 캠프 화이어(바비큐파티) 등
- 접수기간 : 5월 2일부터 선착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i-youth.incheon.go.kr)

문의 _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수련팀 (465-6827)

청소년 자원봉사자모집합니다


인천동구 서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청소년 10명
- 사전교육 : 5월 6일 오후 5시
- 봉사일시 : 5월 7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송현근린공원
- 내용 : 자원봉사시간 4시간

문의 _ 동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 (762-2642)

문학소녀의 꿈을 다시 살펴보세요

제1회 연수구 주부 백일장



‘아련히 추억이 떠오른다. 문학을 꿈꾸던 소녀시절이...’

그 소중한 아름다웠던 소녀시절의 꿈을 이제 주부백일장을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 하얀 원고지에 가정의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담아보세요.

참가대상 :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부

개최일시 : 5월 10일(화) 오전 10시

개최장소 : 연수문화공원 행사장

신청접수 :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연수지회 (816-2638 / 팩스 816-2639 / 016-273-5529(양경순) / yangks1303@hanmail.net

신청마감 : 5월 7일(토) 오후 1시

※참가하신 주부들에게 기념품 증정합니다.

송도 유원지 뱃놀이 기념 사진 (1940년경, 화도진도서관 제공)

1930년대에 국내 최초 인공백사장으로 개발된 송도유원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지였다. 수문을 통해 바닷

물을 끌어들여 찰물해염과 뱃놀이를 할 수 있었고 봄·가을 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였으며 무엇보다 아베크족

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데이트 코스였다.

마땅히 물놀이를 할 수 없었던 시절, 아이들에게 그곳에서의 해수욕 경험은 개학 후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오

색튜브, 아이들의 물장구놀이, 안전요원의 호루라기 소리… 옛날 송도유원지의 여름은 그렇게 왁자지껄한 ‘즐

거움’으로 언제나 뜨겁게 달궜었다.

송도 유원지와 청량산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

58 굿모닝인천